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8호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대행선연구원은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 발표자와 토론자가 종합토론에 나선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大行禪 연구·홍포 첫 발 내딛다

대행선연구원, 5월 19일 제1회 학술대회

대행 선사 탄신 90주년 맞아
이평래 원장 등 교계 학자들
대행선 사상 연원·특징 고찰

본래성불·여래장서 접점 확인
"법성종·남종선 근거해" 주장
행적 통한 '혁신불교' 조명도

"네 안의 한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찾는 붓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행 선이다."〈이평래 원장〉

"대행선은 달마로부터 전승돼 온 조사선풍의 바탕인 본래성불 사상에 닿아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김호귀 연구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 선사 탄신 90주년 및 열반 5주기와 연구소 개원을 맞아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대행선' 연구와 대행 선사 가르침 홍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참여 학자들은 대행 선사의 선법(禪法) 및 한마음 사상에 대한 연원과 교리적 근거 등을 분석·고찰했다.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한마음의 원리를 종지(宗旨)로 삼고, 주인공(主人空)의 편재(遍在)를 본체(本體)로 삼으며, 오공법(五共法)의 실천을 묘용(妙用)으로 하여 각각 종과 체와 용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대행선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구조에서 학자들은 교리적 근거와 사상적 연원을 찾았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사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것을 〈대승기신론〉의 '여래장 사상'이라고 봤다.

그는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의 본바탕을 진여 법신이라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본디 중생의 바탕이 붓다이므로 밖에서 붓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다임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라는 대행선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실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신·보신·응신의 삼신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조사선을 바탕으로 한 '본래성불' 사상이 대행선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귀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어에는 근원적 한마음의 원리가 설명돼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본래적 주인공의 관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평등적 오공의 공동체 의식으로 실현된다"면서 "대행선에서 본래성불 사상이야말로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확신토록 하는 수행법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일심(一心)사상과 대행 선사가 주창한 '한마음'에 대한 교리적 상관관계도 조명됐다. 박소령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무조건 놓고 지켜보는 실천법인 주인공관을 제시해 대중들이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용이하게 자각하도록 했다"며 "한마음 사상은 생활불교 강조로 이어져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실천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에 대한 대략적인 선종 계보 분석도 나왔다. 이평래 원장은 대승불교를 천태종·삼론종·선종이 주류를 이루는 법성종(法性宗)과 아비달마·유식 등이 속한 법상종(法相宗)으로 분류하고 대행선은 '법성종'을 기반해 출발한 선종에 충실함을 역설했다.

이평래 원장은 "법성종을 기반한 대행선은 인간의 본바탕을 붓다와 같은 한마음으로 본다. 한마음을 진여·불성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붓다라는 것"이라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붓다를 찾아 떠돌지 말고 네 안에서 붓다를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대행선은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통한다고 봤다. 수행과 현실을 둘로 보지 않고 현실에 참여해 자비를 구현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며, 이입으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을 대비할 때 상통점이 많은 것은 대행 선사 역시 남종선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행 선사의 행적을 좇아 그 안에서 담긴 '혁신불교'를 조명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김광식 교수는 대행 선사가 활발히 활동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의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공과를 분석했다.

그는 "대행 선사의 불교혁신은 기복 및 경전 중심에서 참선 중심의 포교, 소외자 중심의 포교, 선법가로 지칭된 음악 포교, 서적 및 미디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포교, 일원상(一圓相) 수용, 참선의 독창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대행 선사의 활동은 기존 주류 종단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불교적인 흐름의 기조 하에서 전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서 발표된 논문들은 영역 작업을 거쳐 한글·영역 합본 형태의 논문집으로 출간돼 국내외 유명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A4·5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대상 '침팬지학자' 제인 구달 등 4인 선정

만해축전추진위, 2017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살레


제인 구달


최동호


클레어 유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2017 만해대상 수상자로 '하얀헬멧'(평화부문), 제인 구달(실천부문),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 및 클레어 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상임고문(문예부문 공동수상)을 선정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평화부문 수상단체 하얀헬멧(대표 살레)은 2011년 내전이 발발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로,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종파에 관계없이 전쟁터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있다.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 2014년 공식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약 8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 약 27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실천부문에는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83)이 선정됐다. 제인 구달은 세계적 침팬지 학자이자 환경 및 동물권 운동가로, 유엔 평화대사로서 인류사를 통틀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달은 침팬지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찰하던 관행을 깨고 이름을 붙여 연구함으로써 동물에게도 감정과 개체적 개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제인 구달은 1977년 제인구달연구소를 창립해 침팬지 보전 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설 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140개국 8000여 그룹에서 진행 중인 환경운동 네트워크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현재도 구달은 1년에 300일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지구와 환경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문예부문에는 최동호(69)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시인협회장)와 클레어 유(79)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상임고문이 선정됐다.

최동호 교수는 1976년 첫 시집 〈황사바람〉을 발표한 중진 시인이자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당선한 현장비평가이며 대학에서 한국 현대시를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아침책상〉(1988)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1995) 〈공놀이를 하는 달마〉(2002) 등 7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클레어 유 상임고문은 1980년부터 버클리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2001년부터 한국학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시인 고은의 시집을 미국에 번역해 소개하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단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 공동수상의 경우 5000만원씩 수여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00여 운수납자, 정유년 하안거 결제

진제 스님 "대오견성 의지와 용맹심 갖추라"

불기2561년 정유년 하안거 결제가 5월 10일 전국 조계종 100여 개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올 하안거에는 비구·비구니 수좌 2000여 명이 방부를 들이고, 끝없는 화두참구에 들어갔다.

하안거 결제에 앞서 5월 8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결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듯이 선불장(選佛場)에 임하는 수행자들은 이번 결제에 반드시 대오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용맹심을 먼저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며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것이 화두참선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윤달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를 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통도사는 부처님의 친착가사와 남산율종의 종조이신 자장스님의 친착가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법을 가사로 지어 전국의 대덕스님들께 공양올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짓는 기회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가사불사
입 재 2561년 5월 28일 (음 5.3) 오전 10시
회 향 2561년 7월 11일 (음 윤 5.18)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지정 5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 재 2561년 5월 28일 (음 5.3) 오전 10시
회 향 2561년 7월 15일 (음 윤 5.22)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 의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영배 합장



전통문화·남북교류 文 공약, 불교계 '긍정효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불교계에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사진〉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놓은 불교와 전통문화 관련 공약 이행에 대한 불교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중에서도 불교계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교류 재개다. 이는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조계종·천태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前대통령 집권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하면서 대표적 민간교류인 남북 불교계 교류 역시 단절됐다. 그동안 조계종과 천태종은 북한에 사찰을 복원하고, 복원 기념일에 맞춰 북한을 방문해 합동다례재를 올리곤 했다.

특히 신계사의 경우 2~3년 전 폭설로 대웅보전 암막새가 탈락하고, 요사채인 수승전 지붕에 굴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시보수를 했지만 이후 북한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더 이상의 교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올해가 신계사 복원 10주년인 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남북민간교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팀장은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공약에서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오는 10월 신계사 10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이를 기점으로 남북불교교류가 새롭게 도약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신계사 보수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방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조선불교도연맹서 자체적으로 보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 되는대로 조불련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로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국가기념일인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해야 한다는 불교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석가탄신일보다 부처님오신날이 좋은 우리말이지 않나. 더 다정하게 느껴진다. 이 부분은 당장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서도 이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서 기념일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다.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고, 한글로 사용할 때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통사찰 중복규제 해소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통문화·문화재와 관련된 공약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는 향후 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제안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사찰 중복규제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서는 발전을 위한 국가 책무 등이 명시돼 있으나 타법에서 규제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부처별로 중복돼 있어 한 가지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 해소 효과가 없다고 조계종은 주장했다.



文 대통령의 불교·전통문화 공약

- 南北 관계개선 통한 교류 확대
-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
- 전통사찰 중복규제 해소
- 현대차 GBC 건립에 불교계 의견 반영
- 국립공원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 전통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문화재 방재 종합대책 마련
-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 민간국유문화재 예산 형평성 확보
- 문화재 도난·멸실 예방 위한 시효 폐지

현대차 GBC, 불교계 의견 반영

문 대통령은 불교계 현안 중 하나인 봉은사 인근 현대자동차 글로벌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 불교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교계 언론 인터뷰서 피력하기도 했다.

현대차 GBC 건립 사업은 최근까지 조계종과 현대차 측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달 17일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와 서울시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갈등 해소에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립공원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전통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문화재 방재 종합대책 마련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민간국유문화재 예산 형평성 확보 △문화재 도난 시효 폐지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5회 불교언론문화상 8월 3일까지 접수

시상식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를 접수한다.

방송(TV·라디오)·신문·뉴미디어·불교언론인상·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해 접수하며, 방송은 프로그램, 신문은 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 및 작품을 시상한다. 불교언론인상은 공로에 따라, 특별상은 방송·신문·영화·광고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선정한다. 출품 대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다.

응모는 직접응모와 추천응모로 나뉘며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 1부를 공통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9월 중순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상식은 9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언론문화상은 지난해부터 상의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자 상금규모 일부를 증액해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시상하는 대상 1작품에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1인 500만원)과 특별상(3작품 각 300만원)을 제외한 각 부문별(방송·신문·뉴미디어)로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불교언론문화상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시상식이다. 1993년 대한불교신문사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공동으로 발의해 제1회 보리방송문화상 첫 시상식을 개최한 후 2004년(제12회)부터 상의 권위와 내실을 기하고자 조계종 총무원과 (사)보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05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데 이어 2006년부터 종단사업으로 진행돼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신행혁신운동, 필수 신도교육에 포함

조계종 포교원, '종단 필수교육 강사 간담회'

조계종이 각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단 필수교육 연수 교과목에 '신행혁신' 운동이 포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도전문교육기관 강사 중 '종단 필수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필수교육 연수 방안을 공개했다.〈사진〉



종단 필수교육 연수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각 불교대학 수강생들이 조계종 역사 및 역할, 신도품계제도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초기 1박 2일 교육연수로 진행됐지만 2013년부터 당일교육으로 변경, 시행돼 왔다.

포교원은 올해부터 '교구본사 중심체제'를 구축하고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지역 불교대학 종단 필수교육을 진행토록 변경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원불교대학 학장 등안 스님과 불광사 전임교수 범준 스님, 전국 교구본사의 포교국장 스님 등 종단 필수교육 강사스님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강사스님들은 기존 교과목인 '종단의 이해와 나아갈 길'. '신도종책과 품계제도 안내' 외에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강사 범준 스님은 "불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의 표준화된 교육이 있었으면 했다. 신행문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행혁신 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신행혁신을 통해 불교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전국 140여 곳 불교대학의 불자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종단 필수교육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종단필수교육은 2017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43회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대학에서 지역연합, 본사연합, 단독시행 등 방법과 일정을 택해 신청하면 포교원에서 교과목 선정 및 강사 등을 지원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단 최고지도자 위한 특별한 연수교육원

6월 종사·명덕 특별과정

조계종 종사·명덕 법계(승납 30년 이상)를 지닌 스님들을 위한 특별 지도자과정이 운영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최고지도자 특별과정'을 실시한다.

'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개설됐다.

특별과정에는 △불교와 건강(김용진 경희봄한의원장) △최고경영자로 가는 길(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한국사회와 복지(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정치와 오늘의 한국사회(박원석 前국회의원) △불교적 경영의 패러다임(임해성 〈토요티즘〉 저자)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종사·명덕 스님은 교육원 연수교육 사이트와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비는 20만원. (02)2011-1807

신성민 기자



‘포교 콘텐츠’ 모바일로 집대성된다

포교원 ‘붓다로살자’ 앱 개발 착수…8월 말 공개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혁신운동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모바일 포교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시대에 맞춰 모바일로 수행을 점검하고, 영상법문과 설법 자료 등을 열람하는 등 뉴미디어 포교의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5월 15일 아토즈소프트를 ‘붓다로살자’ 앱 개발 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붓다로살자’(가칭)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용 2가지 버전으로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개발된다.

‘붓다로살자’ 앱에는 먼저 신행혁신운동에 대한 소개와 서원 메모를 포함하는 ‘붓다로살자 서원’ 기능이 담긴다. ‘붓다로살자 서원’에는 붓다로살자 공통서원문과 함께 자신만의 서원을 남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포교원이 보급을 시작한 일일수행점검표의 모바일 버전인 ‘붓다의 수행’ 기능도 들어간다. ‘붓다의 수행’은 불자들이 일일수행 실천을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삼보예경, 청규읽기, 수행하기, 이웃을 위한 기도하기, 발원문 읽기, 보시하기, 사홍서원, 수행일기 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행기간도 50일에서 1000일 등 다양하게 설정가능하며, 기존 포교원이 개발한 연령별 마음거울108앱과 연동한 참선, 명상, 독경, 염불 등 지원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50대 불자가 염불수행을 선택하면 중년마음거울 108앱이 연동돼 이 앱에 담긴 염불 정근 음원과 배경화면이 함께 표시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푸쉬기능을 설정하면 수행시간에 맞춰 진동 등으로 수행일정을 알려준다.

이 밖에 포교원 및 포교 · 신도단체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식’ 기능도 있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포교원 산하 포교 · 신도단체들의 동향과 소식이 공유된다. 또 신행혁신운동 관련 다양한 행사와 활동도 공지된다.

1일 수행점검 기능 탑재
그래픽으로 달성도 표시
연령별 마음거울앱 연동
의례 음원 · 경전자료 제공
포교 · 신도단체 소식 공유
“지속 개발, 뉴미디어 포교”

눈길을 끄는 것은 ‘자료실’ 기능이다. 자료실에는 법문 동영상과 법화와 설법 자료, 경전 자료, 반야심경과 칠정례 등 우리말 의례 음원 및 동영상 등이 공유된다. 일선 사찰에서 붓다로살자 앱을 통해 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청암사 승가대학서 태블릿을 활용해 교육 받는 학인 스님의 모습. 포교원은 모바일 시대에 맞춰 스님과 불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붓다로살자 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당초 이번 앱에 M(모바일) 라이브러리 기능을 담아 그동안 포교원이 펴낸 다양한 포교 연구자료를 공유하려 했지만, 용량과 제작일정 등의 문제로 법회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료는 PC용 화면을 별도 구성하고 PC를 연계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설정’ 기능에서는 설정기간 동안 수행에 따른 변화와 달성도를 연꽃이 피어나거나 나무가 점점 자라는 등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포교원 포교종책팀장은 “포교원은 최근 통합종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종단의 종무행정에 부합하도록 포교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모색해왔다. ‘붓다로살자’ 앱 개발을 통해 뉴미디어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며 “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사찰현장과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쉽게 불교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대표IT 개발 업체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외부의 모바일 전환과 별개로 불교계에는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활용 등에 미숙한 환경적 특색이 있다”며 “사찰과 스님 외에 일반 신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스마트폰 교육 등을 병행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앱 개발에 앞서 5월 12일 각종 포교자료를 담은 USB를 130여 전법중심도량에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8주 과정 부탄 행복명상아카데미 열린다

한국부탄우호협회 등 공동,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 부탄의 불교명상과정을 국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윌리엄 리)와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역 대한성공회 성당 프란시스코홀서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부탄정부가 공식 인증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탄이 아닌 외국서는 최초다. 특히 대한성공회와 성가수녀원이 후원할 만큼 불자뿐만 아니라 범종교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과정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다. △행복왕국 부탄 개요 △부탄의 정신문화 △부탄의 행복명상-아상을 자르는 명상 △부탄의 행복명상-마음바꾸기 명상 △국민을 행복하게 하라 △부탄문화체험-싱잉볼 명상 △부탄 고승초청 수행지도 특강 △부탄행복명상 템플스테이(보성 대원사) 등으로 강의가 구성됐으며, 8월 18~25일 부탄현지 행복명상워크숍 및 부탄성지순례가 진행된다.

강사진은 마가 스님과 현장 스님, 윌리엄 리 한국부탄우호협회장을 비롯해 쿤상라돈(부탄학연구소), 천시아(싱잉볼 명상가), 남개왕축(국가행복위원회), 남닥린포체(부탄고승) 등이며, 주제별로 나눠 강의한다. 수강료는 1~8주차 강의 80만원, 부탄현지 워크숍 289만원이다. 모든 과정을 마친 수료자에게는 부탄정부에서 인증하는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수료증이 주어진다.

한국부탄우호협회는 이번 입문과정을 시작으로 중급 · 심화과정을 연달아 운영해 행복명상전문가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02)518-5012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신흥사 역사 ‘한눈에’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5월 10일 경내에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에는 신흥사 금고(강원도유형문화재 제163호)를 비롯해 신흥사 동종(도유형문화재 제164호), 안양암 아미타회상도(도유형문화재 제165호), 신흥사 칠성도(도문화재자료 제151호), 신흥사 청동시루(도문화재자료 제169호) 등 약 1천여점 이상의 성보가 전시돼 있다. 또한 창건 이후의 신흥사 사력과 이 곳에 주석했던 역대 고승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주일 기자

4.16희망순례단, 팽목항 향한 809km 여정 출발

7월 6일 팽목항 당도 예정, 동참자 1004명 모집

인천 연안부두에서 팽목항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걷는 ‘4.16순례길’이 첫 발을 내딛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순례단은 7월 6일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총 809km 순례길을 걸어 팽목항에 당도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출발식은 ‘4.16순례길’ 조성 취지 소개, 각 종단 지도자들의 격려사와 관련 기관단체의 연대사, 순조로운 순례를 기원하는 작은 공연, 선언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4.16 순례를 떠나며’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세월호의 아픔을 마음에 새겨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4.16순례길의 출발식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순례길 조성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겐 큰 위안이 되고 아픈 상처를 생명 존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겐 새로운 꿈이 되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특히 이번 순례단은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순수하게 전국에서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 앞장서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따가운 햇살아래 고된 길이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순례길이 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환한 길이 넓게 열리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이날 출발식 후 순례단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광장~롯데아울렛 팩토리~학익에코테마파크~아암도해안공원~외암도사거리 등 총 14km를 행진했다. 순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약 53일간 22개 지차제, 총 809.16km를 걷는다. 순례 동안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한편, 목포신항에서 기도모임을 여는 등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한편 순례단은 이번 순례 동안 동참자 1004명을 지속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하루 이상 함께 걷고 3만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 신청은 ‘세월호 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홈페이지서 가능하다. 현재 생명평화결사, 세월호지리산천일기도, 지리산종교연대, 한국작가회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살자, 예술살기 등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29회 한국불교미술대전 공모

9월 5~7일 나무갤러리서 접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제2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을 발표하고 9월 5~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서 작품접수를 받는다.

특히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상의 훈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상작 상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청년불자들의 작가활동을 유도하고자 대학생 이하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특별상을 신설했다.

이밖에 △최우수상(2명),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3명),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장려상(6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특별상(2명), 상장 100만원 △특선 및 입선(00명) 상장 등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열리며 이날부터 12월 1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공모 요강 및 응모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70 **박아름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시계 점안식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날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 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약력
- 대한불교정음사원 원장
- 불교조계종관음사주지
- 심령과학 영상학회 회장
- 한국 장례문화 연구원장
-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장
- 대체의학기(氣)연구소장 www.kgf21.kr
- 대한민국 37개 불교종단으로부터 심령학자 인증과 불교대체의학 연구상 수상

방송출연
- MBC 일요스페셜 ‘기 신비에서 과학으로’
- KBS 미스터리 추적 ‘영의 수수께끼 저주’
- KBS 미스터리 추적 ‘기 염력’
- KBS 놀라운 TV ‘기 염력’
- SBS 토요미스터리 ‘혼령이 있는곳’
- HBS 영혼과 대화 (귀신은 있다)
- HBS 숨어있는 의술명인 (난치병을 고친다)



정음 큰스님
가정과 개인 상담전화
(010-4142-0924)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



大行禪

한마음, 진여법신 · 여래장과 맞닿아

[기조발표]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한마음을 실체란 비판 행위는
법신 · 보신 · 응신 삼신설 몰이해
대행선은 법성종 기반한 '선종'

대행 선사(1927~2012)가 깨달은 한마음(ekacitta, 一心)은 진여 법신(tathat¤vadhamak¤vya, 眞如 法身)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은 진리이고, 불성 · 여래장이며, 법계이고, 진공묘유이다.

한마음은, 너무나 커서 겉이 없는가 하면, 너무나 작아서 속이 없다. 너무나 높아서 끝이 없는가 하면, 너무나 깊어서 밑이 없다. 한마음은 유와 무, 유루와 무루, 유위법과 무위법, 속제와 진제, 윤회(sa¸sa¤ra, 輪廻)와 니르와나(nirv¤¸a, 涅槃), 번뇌(kle¶a, 煩惱)와 보디(bodhi, 깨달음), 무명과 진여, 차안 과 피안, 지옥과 극락을 걸림 없이 넘나드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애자재이다.

한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대행 선사는 한국이 낳은 진인(眞人)이다. "태어남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되거나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까르마(karma, 業)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샤끼야무니 붓다의 말씀처럼, 대행 선사는 그의 삶이 진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창한 선을 대행선(大行禪)이라고 부른다.

한마음은 형상이 없어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것이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만물만생은 본래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실상이자 한마음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삼천대천세계가 무아이고 공이므로, 논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현상계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실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신 · 보신 · 응신의 삼신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을 자성, 불성(buddhadh¤tu 佛性), 여래장(tath¤gatagarbha, 如來藏), 진여, 아빠(내면의 본래자성불), 심주, 심봉, 물건, 본래면목, 본래무일물, 아미타불, 하느님, 나의 님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명무실(假名無實)일 뿐이며, 한마음 주인공이 자신을 이끄는 '참 나'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한마음을 사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여래장사상이며,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전(經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리적 · 조직적 · 체계적 · 철학적 · 종교적인 것을 들자면, 그것은 단연코 〈대승기신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승기신론〉은, 한마음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의 본바탕을 진여 법신이란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디 중생의 바탕이 붓다이므로 밖에서 붓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다임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라는 대행선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불교의 문화권에 들어 있는 한국불교는 소승불교를 인천교라고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승불교를 크게 법성종(法性宗)과 법상종(法相宗)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담론을 전개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전자는 천태종 · 삼론종 · 화엄종 · 선종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아비다르마의 소승불교와 유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판별하면, 대행선은 법성종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선종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성종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대행선은 인간의 본바탕을 붓다와 같은 한마음으로 본다. 한마음을 진여 · 불성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붓다라는 논리이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붓다를 찾으러 떠돌아다니지 말고 네 안에서 붓다를 찾으라는 것이다. 네가 붓다인데 왜 또 붓다를 찾으려고 헤매느냐? 네 안의 한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찾는 붓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행선이다.

대행 선사, 혁신불교를 보인 선각자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本紙 창간, 당시엔 놀라움 자체
거사 · 청년 등 신행 소외자 품어
혁신불교 내보이며 대중화 성공

[주제발표] 대행 선사의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

필자는 20년간 한국의 근현대 고승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물을 학계에 보고한 바가 있다. 근현대 고승을 연구하였던 배경하에서 필자는 본 고찰에서 대행 선사의 행적을 요약하고 그를 통해 나타난 '혁신불교'의 정체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대행 선사의 활동은 1970~2000년대이다. 대행 선사의 활동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대한불교회관을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기 이전 단계이다. 이 때는 원주 상원사의 불사(1960년대)를 마감하고, 안양으로 이전하여 기반 조성을 한 단계이다.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이 초창기 단계로 불교 외곽에서 고독하게 터전 확보의 작업을 추진하였던 시기로 이해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1982년 즉 한마음선원으로 전환하고 조계종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종단 중심부로 진입한 시기이다. 1982년부터 1994년 〈현대불교〉 창간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대행의 포교 활동과 한마음선원이 본격적으로 발전 단계로 진입한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국내지원, 국외지원의 개설이 개시되었으며, 대행의 활동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선법가 활동, 영탑공원의 가시화는 여타 단체에서 볼 수 없는 특이성이었다.

그런데 한마음선원의 일면에는 대행의 '신비성(치병)'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종교, 신종단, 급성장하는 교단에는 이런 신비성이 늘상 있어왔다. 필자가 보건대 한마음선원도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 · 해석을 하여서 그를 보편적인 역사로 활용하였던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94년 〈현대불교〉의 창간부터 입적하였던 2012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행과 한마음선원이 불교계 중심부에 완전 진입하여 정상에 섰던 기간이라 하겠다. 그 어떤 사찰과 단체도 행하지 못하였던 불교계의 신문을 설립, 경영한 주체는 누구이었는가? 더욱이 비구니 스님이 신문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대행 선사가 추진한 거사법회, 청년법회, 불교방송국 등은 불교계에서는 감히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신선한 불사였다. 소외자, 방관자였던 거사와 청년을 주제로 법회를 하였음은 CEO적인 마인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같은 혁신적 · 파격적 · 특별한 시도는 그 자체가 혁신불교였다.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중의 심성을 고려한 불법 생활화의 구현이었던 것이다. 이런 혁신적인 노선, 실천 하에서 거사와 청년층의 수희동참을 이끌어내었고, 그것이 한마음선원 발전의 강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성격은 한마음봉사단 발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요컨대 발상의 전환과 다른 고승이 행하지 않는 독특한 설명법을 통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교단을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소외 계층을 끌어안고 불사가 성공하게 된 그 당대(1970~2000; 30년)의 일반사, 불교사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대행의 불사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당대 불교와 종단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행보, 노선을 가지 못하였는데 그 당위의 노선을 대행 선사는 걸어갔고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불교를 진정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손을 내민 사업이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마음선원이 출범하여 성장하고, 독자화에 성공한 것에는 그 당시 불교계가 처한 내외의 여건을 극복한 것이라고 본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본래성불 사상, 대행선의 근간



김호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본래성불', 대행선의 공통적 기반
한마음, 불성·법성·자성 원리 전개
주인공 관법과 오공 보살행 확장

[주제발표]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

대행선이란 대행 선사의 선풍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 선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행선 나아가서 대행 선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행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묘공당 대행 선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평생에 걸쳐서 반복 내지 강조하여 설했던 그 다양한 법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법어들을 통하여 드러나 있는 대행선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마음의 원리를 종지(宗旨)로 삼고, 주인공(主人空)의 편재(遍在)를 본체(本體)로 삼으며, 오공법(五共法)의 실천을 묘용(妙用)으로 하여 각각 종과 체와 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행선의 근본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한마음과 주인공과 오공법의 근원에는 처음부터 모든 측면에 걸쳐서 항상 일관되고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 곧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사상이다. 따라서 대행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래성불의 사상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래성불의 개념은 〈원각경〉, 〈화엄경〉, 〈능가경〉, 〈열반경〉 등 여러 대승경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체중생의 본래성을 긍정한 달마의 조사선풍에서 더욱 더 확장되었다. 곧 달마의 이입으로부터 혜가와 승찬과 도신과 홍인과 혜능 및 이후 선종오가의 조사들에게 전승되면서 보편적인 사상으로서 널리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본래성불의 사상이 대행 선사에게는 자성불, 본래자성불, 자성본래불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계의 진여로서 법신불의 개념에 닿아 있는 한마음의 경우, 무일물과 위음왕불 이전과 부모미생 이전의 근원성으로서 불성과 법성과 자성의 원리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곧 본래성에 대한 철저한 긍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한마음의 구체화이고 개별화로서 출현해 있는 주인공의 경우, 진리이고 빛이며 영원이고 생명이며 부처이고 보살이며 청정이고 긍정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무조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관법수행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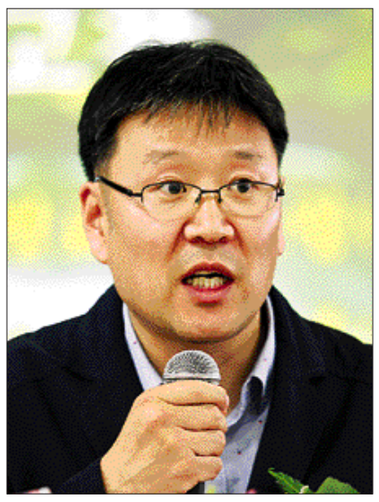
나아가서 한마음의 원리를 공동체의 방식으로 실현해 가는 오공의 경우, 부처와 중생의 본체가 다름이 없다는 동체대비의 근거로서 본래성불의 조사선풍이 보살행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대행선의 사상적인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본래성불의 사상은 대행선사의 법어 곳곳에서 설파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다. 때로는 근원적인 한마음의 원리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본래적인 주인공의 관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평등적인 오공의 공동체의식으로서 일체중생의 기체로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대행선에서 본래성불의 사상이야말로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확신토록 하는 수행법의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행선은 전통의 조사선이 근거하고 있던 본래성불의 사상에 계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긍정을 통하여 평상심으로 전개되었던 보살도에 직결되어 있다.

一心의 현대적 해석 '한마음'

[주제발표] 한마음사상에 나타난 교리적 근거 고찰



박소령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한마음, 진여·불성과 같은 의미
이를 맡겨 관함이 '주인공 관법'
오공 통한 생활불교 강조 연계

불교전통에서 근본 진리를 일심(一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행 선사도 한마음을 요체로 하고 있다.

대행 선사는 '한마음'을 다시 '주인공(主人空)'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인공은 곧 한마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총상인 한마음에서 주체적 자각을 위해서 인격적 의미가 부여된 주인공이라 볼 수 있다.

〈기신론〉에서는 만법의 근원이나 절대적 총상으로서 一心(한마음)을 나타내고 이 일심은 다시 내재적 속성으로서 如來藏(주인공)을 통해 진여와 생멸의 두 문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대행 선사가 설한 주인공도 우리 한마음에 내재된 본성으로서의 진여(眞如)나 불성(佛性)과 같으며 또한 자성불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진여(一心眞如)'와 대행 선사가 말하는 '한마음 주인공'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우리 본연의 총상으로서 한마음을 주체적 주인공으로 구체화시켜 실천상 용이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대행 선사가 말하는 주인공은 한마음을 주체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실천 수행의 핵심이 된다. 그는 "나는 일체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몰록 놓으라는 것을 수행법의 요체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삶의 근본 주체인 '한마음 주인공'을 확고히 믿고 일체를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는 것으로 바로 '주인공 관법(觀法)'을 말한다.

이 주인공 관법의 선결조건은 믿음이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 본성에 대한 믿음이 참선의 근본이다"라고 하여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기신론〉에서 네 종류의 믿음 중에서도 '根本眞如(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가장 상위에 둔 점과 연관된다.

대행 선사는 모든 것은 한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그로부터 나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체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하며 돌아가고 있음을 설한다. 이러한 한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원융무이한 연기의 작용원리를 설명한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사상(五共思想)'이다. 이러한 오공사상은 〈대승기신론〉에서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은 능히 대승의 자체와 상과 용을 보인다"고 한 일심삼대 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마음'은 '일심'의 현대적 해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행 선사 자신만의 독특한 실천적 사상체계가 담겨 있다. 그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무조건 놓고 지켜보는 실천법인 주인공관을 제시하여 대중들이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용이하게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은 생활불교 강조로 이어져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가 어려운 이론사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상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五共, 남종선 정신 계승·승화

[주제발표]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삼론·반야 등 다양한 사상 접점
대행선, 〈이십사행론〉과 더 유사
실천이 수행 완성, 남종선 맞닿아

대행 선사는 일심(一心)을 오공(五共)으로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공은 일심의 작용이다. 그것은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共食)이다. 대행은 "사대가 원천이기에 생명과 생명, 우주 전체는 공생, 공체, 공용, 공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느니라"라고 말한다.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共의 개념을 空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무집착 공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사상은 반야사상과 유심사상이 결합하여 심화되고 완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사상의 근본에 반야사상이 깔려 있으며, 대행 선사가 선사로서 일대를 풍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야사상을 대표하는 공사상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모형을 당나라 때 활동한 삼론종의 개창조사인 길장의 사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길장은 〈삼론현의〉에서 자리이타와 공리(共利)를 강조한다. 이 경우 공리란 공동의 이익, 함께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길장은 이제(二諦)를 아는 것이 자리(自利)와 타리(他利), 그리고 공리(共利)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란 제일의제(승의제)와 세속제(세제)를 지칭한다. 제일의제가 분별의식을 초월한 무분별의 지혜를 지시한다면, 세속제는 분별과 개념, 논리와 언어의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편의적으로 구분한다면 표층세계와 표층세계의 이면인 본질의 세계이다.

대행 선사가 종이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 불이(不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길장은 제일의제와 세속제라는 개념을 통해 현상과 본질의 불이를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세속제는 제일의제에 들어가는 징검다리이다.

만일 징검다리나 설법이 없다면 대다수의 무지한 중생들은 피안의 세계, 불성의 세계, 내지 제일의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가 진실한 수행자에겐 모두 구비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완성하고,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점에서 공리라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공리는 공통하는 이익 내지는 공유하는 이익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대행 선사의 선사상은 오히려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통한다. 즉 사회적 실천과 자비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 사상적인 친근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 활동했던 고승 인순은 "이입(理入)은 돈이(悟理)이고 행입(行入)은 수도(修道)이다"라는 〈이입사행론〉에 나오는 문구는 여래장사상이며, 이 여래장설의 교설에 의거해 철저하게 신해하고 함망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한마음(一心 = 共體)을 바탕으로 공심과 공용을 분류한다면, 공심과 공용을 이입과 행입에 대비할 수 있다. 수행과 현실을 둘로 보지 않고 현실에 참여해 자비를 구현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며, 이입으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마의 〈이입사행론〉과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을 대비할 때 상통점이 많은 것은 대행 선사 역시 남종선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대성이다.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은 남종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자기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런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종교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은 불교적 수행을 관념의 세계에 가두지 않고 사회화하려는 의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한국불교의 중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TOP 100
동국사랑 1·1·1
1인 1월 1만원 후원

동국사랑 1·1·1 캠페인 후원방법

1 스마트폰 약정
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약정서 작성
스캔 방법
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다음앱 접속
② 검색창 오른쪽 마이크 아이콘 클릭
③ 코드 메뉴 클릭 및 QR코드 스캔

2 휴대폰 사진 전송
본 광고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1800-3283)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3 후원 문의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 02-2260-3300
홈페이지 : http://ilove.dongguk.edu
팩스 : 02-2260-3796

“기복 탈피에서 불교 중흥 온다”

조계종 포교원 13일 신행혁신 학술연찬회서 한 목소리

김재성 박사, 초기불교 중흥 분석
발심 · 보시 · 지계 · 정진 일치
“청빈 생활, 승가 공유 재정립 해야”


연찬회에 발제자로 나선 학자들은 각 시대 구분을 넘어 기복문화 탈피가 불교 발전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처님께서 말한 믿음은, 현시대의 기복이 아닌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었다. 초기불교 불교 전도의 성공요인은 바로 기복 탈피에 있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불광연구원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학술연찬회 ‘불교 신행혁신 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각 시대별 신행혁신운동을 살피고, 한국불교 신행혁신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초기불교에서의 불교 중흥과 현 시대를 비교한 김재성 교수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붓다와 초기불교의 신행혁신’ 발표를 통해 부처님 재세시 부처님이 가르친 믿음이 지금의 기복이 아닌 궁극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며, 기복탈피를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믿음은 수행에서 중요한 관문이 되지만, 부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먼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을 설명하고, 믿음이 생긴 출가와 재가 제자들에게 더 진전된 차제법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특히 차제법을 강조하며 김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친 다양한 수행 중 핵심적인 것은 정진과 마음챙김, 그리고 지혜였다. 여기에 믿음과 삼매를 더해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초기불교의 전도의 성공요인에는 이런 신행혁신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도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계율을 함께 지키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승단의 형성, 최소한의 소유말만을 인정하는 승려들의 청빈한 생활방식, 재가자의 의식주와 약품 보시, 재가자가 보시한 보시물을 사방승가가 공유하는 제도 확립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보시를 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자애심을 기르고, 지혜를 계발하여 해탈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실천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공덕이 되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었기에 초기불교는 성공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신상환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은 ‘대승불교운동과 신행혁신운동’ 발표를 통해 “오늘날 불교의 문제는 교학불교의 결여 또는 결핍이다. 선교일체, 지관쌍수 등으로 표현되는 대승불교의 통섭적 사유에서 어느 한쪽이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토”라며 “한국불교의 모습에서 실망한 재가불자들이 남방이나 티벳불교의 체계적인 교학에 눈을 돌려 그 수행법을 국내에 소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기복 및 제례의식으로 행하는 신행생활은 타종교와의 차이점을 점점 흐리게 만들어 불교가 가진 자기 역동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선종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강학과 대화를 통해 선종 전통을 다시금 확산시켜야 한다”며 “간화선 전승과 전통을 현대언어로 재구성할 줄 아는 ‘선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음악회도 즐겁게, 불자 新舊조화로 활성화”

Interview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 제13대 회장



‘타타타’로 유명한 가수 김국환〈사진〉 씨가 5월 18일 대한불자가수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나운하 전임회장이 6년간 불자가수회를 이끌며 일궈온 성과를 이어, 발전하는 대한불자가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음성포교사로서 신명나는 생활불교의 선행단체가 되도록, 내적으로는 회원복지와 단합된 마음으로 많은 행사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불자가수회는 현재 2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0년 창립 후 점점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못했다. 가수들이 응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바로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좋은 무대를 만드는데 대한불자가수회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가요제를 비롯해 군부대와 교도소 위문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사찰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나이가 많거나 지명도가 낮은 가수들이 나온다는 인식을 바꿔야지요. 좋은 무대가 마련되면 알아서 불자 가수들이 공연장을 찾을 겁니다. 젊은 가수들 중에 불자가수를 발굴하고 젊은 불자들도 이런 가수들의 무대를 보러 모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먼저 사찰과 스님들에게 존재를 알리는 일에 나선다. 내부적으로는 큰스님 초청법회 정례화 등으로 정체성도 확립한다.

“창립 27주년의 중견 신행단체인 대한불자가수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원가수들이 하나로 뭉쳐 삶도 봉사도 하나가 돼 신명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뿌리가 깊지 않은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대한불자가수회를 지켜주신 원로 가수들과 신임 불자가수들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가수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생명존중운동본부 호스피스 첫 교육


불광사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듣는 불자의 모습.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는 5월 16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과 호스피스’ 강좌를 개강한데 이어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두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개강에서는 대구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 등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나서 불교호스피스를 설명했다.

정법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죽어가는 이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호스피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좌를 개최한 임정애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호스피스로 대변되는 웰다잉은 죽음을 고찰해 삶을 의미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지키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도 2차 강연회가 열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는 23일과 25일에도 서울 불광사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양주 육지장사 제1회 이민다문화 가족축제 개최

6월 10~11일 총 4개 행사 구성 ‘눈길’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6월 10~11일 한국 이민 · 다문화정책연구소와 함께 육지장사에서 제1회 직업문화체험 · 다문화 가족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지대 산업대학원 다문화사회전문가 그룹의 음악 및 미술심리상담 △시니어 해피드림의 핸드메이드 공예 △민들레 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의 국제결혼가정 문화체험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다문화 상담 교육 등 총 4개 부스가 마련된다.

육지장사 측은 “템플스테이 형식에 축제를 더해 다양한 다문화 체험의 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다문화사회를 맞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가정의달 맞아 소외계층 돌봄 활발

각 복지관 독거어르신, 장애아동, 산불이재민 등 보살펴


무산복지재단이 전달한 구호물품.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5월 19일 장애 · 비장애 통합활동 ‘옆자리를 드립니다’를 개최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2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해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명이 서울대 의대생과 짝을 이뤄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천연비누 및 캔들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경희)는 5월 11일 어버이날을 맞아 블랙야크와 함께 ‘야크 효 박스’ 전달식을 개최했다. 야크 효 박스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독거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구성한 8만원 상당의 식생활용품으로 이날 전달식에서는 복지관 어르신 56명에게 제공됐다.

야크 효(孝)박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어버이날 찾아오는 자식들도 없고 외롭게 보낼 줄 알았는데, 카네이션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어 고맙다”, “유용한 물품들이 담겨있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5월 8일 조계사와 함께 약 30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르신축제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일주문에서는 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맞이했으며,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축하공연으로는 김미숙 한국전통무용가의 교방무와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무산복지재단은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에 자비의 구호물품을 전했다. 강릉지역에는 컵라면 2400개와 후원금 300만원을 삼척지역에는 물 1000개와 컵라면 2400개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이 5월 8일 정식 개관했다. 이날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최성 고양시장 등 내빈들이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복지관 문 연날, 동네잔치 열렸네!

[현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월 18일 고양시 서정마을 주택가에 때 아닌 동네잔치가 한바탕 열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 이하 덕양행신복지관)이 문을 열며 이를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든 것.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에 위치한 덕양행신복지관은 전체면적 1만5318㎡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단일 사회복지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수국사(주지 호산)가 운영 사찰을 맡는다.

앞으로 덕양행신복지관은 '우리 동네 복지희망 파트너'를 모토로, 평생학습센터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민건강센터 등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쉼터이자 힐링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상의 숲'을 테마로 친근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지하 1 · 2층~지상 5층까지 희망의 숲, 소통의 숲, 열정의 숲, 지혜의 숲, 창작의 숲, 풍요의 숲을 주제로 각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 대강당 · 댄스연습실 · 프로그램실 등, 1층에는 사례상담실 · 강연장 · 어린이집 등, 2층에는 스포츠센터 · 탁구장 · 당구장 등, 3층에는 카페테리아, 어린이 · 장난감 도서관, 다목적체육실 등, 4층에는 음악교실 · 서예교실 · 도예교육실 · 이미용실 · 장기바둑실 등, 5층에는 요리교실 · 야외정원 등이 위치한다. 국비 등 338억 원이 투입됐다.

이중에서도 1~3층까지 이어진 중앙계단 옆 벽면에 조성된 '햇살도서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다. 이날도 개관식이 끝나자마자 책을 골라 자리 잡고 앉는 사람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이날 덕양행신복지관엔 내빈 및 지역주민 1000여명이 몰려들며 착공 3여년 만에 개관한 덕양행신복지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소리꾼 장사익 · 가수 우순실 · 고양시립합창단 · 시립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정미(55) 씨는 "집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어 매우 행복하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유무, 빈부 등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덕양행신복지관만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관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아이들도 기뻐하긴 마찬가지였다. 개관식과 함께 부대행사로 열린 페이스페인팅 등을 참여하기 위해 친구들과 허겁지겁 달려왔다는 김나현 · 심예린 · 이슬이(아람초 5년) 학생은 제각기 참여하고 싶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앞 다퉈 말했다. 심예린 양은 "댄스, 요리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원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전부 참여하긴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복지관 안에 깨끗한 도서관이 생겨서 친구들과 함께 언제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어 기쁘다"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덕양행신복지관이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자(62)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미 대부분 선착순 마감 돼서 신청을 못했다. 프로그램 종류와 시간이 더 늘어나 참여 기회가 넓어지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불교계 및 고양시 내빈들도 덕양행신복지관의 개관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자승 스님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복지재단 인재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덕양행신복지관에)파견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추구하는 복지관으로 발전해 가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관을 조계종이 수탁 운영을 맡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 발전을 거듭해 많은 복지시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는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덕양행신복지관이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최고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고양시는 4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복지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덕양행신복지관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면 스님은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과정의 한 걸음이 덕양행신복지관의 개관이라 생각한다"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고양시,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 모두가 서로에게 집이자 울타리가 돼 주며 함께 아름다운 복지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특히 복지관 운영 사찰로 지정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서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식 개관에 앞서 오랜 기간 준비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였다. 호산 스님은 "전국에서 가장 큰 복지관을 맡게 된 후 하나하나 채워가는 기대가 있는 반면 부담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조계종의 큰 스님들이 많이 찾아줘 축하해주시니 부담을 덜었다"면서 "앞으로 덕양행신복지관은 갤러리 같은 복지관, 문화로 가득한 복지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숫자로 보는 국내 최대 '덕양행신복지관'

전체면적	1만 5318㎡
공사기간	3년 4개월
총 층수	지하 2층 · 지상 5층
투입 예산	국비 등 338억 원


덕양행신복지관 조감도

지하2층 · 지상5층 국내 최대 규모

평생학습 · 장애인보호 센터 등 갖춰

수국사 "문화 있는 복지관으로 운영"

주민들 "차별 없는 복지관 되길" 바람


지역주민들이 1~3층으로 통하는 중앙계단 벽면에 조성된 '햇살도서관'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소리꾼 장사익 · 가수 우순실 · 고양시립합창단 등의 축하공연에 시민들이 흥겨워하고 있다.


시립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이 '사랑해요'란 곡으로 무대를 펼치자 장내는 행복의 기운이 더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1권째 서적 출간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3권 출간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모연문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간 불사

〈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다 – 전강 대선사 법어집



공안참구법의 봉화와 같은 지도서 달다를 스승 삼아 참선합시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깨달은 자의 모습을 담아내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⑨ 불상 제작의 고향 마투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길을 간다. 사람이 가고, 자동차도 가고, 그리고 동물도 간다. 사람의 길에 동물들이 어슬렁거린다. 동물의 숫자도 많지만 종류 또한 많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어슬렁거린다. 아, 그렇다면 동물왕국인가. 마투라 가는 길. 이색풍경이다.

그래도 소들이 사람의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풍경은 낯익다. 최소한 인도에서는 그렇다. 특히 힌두교의 도시 바라나시 같은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거기선 소가 주인이다, 아니, 신이다.

그래서 신이 길 한복판에서 누워 쉬고 계시면, 자동차 운전사는 대책 없이 소처럼 쉬면서 기다리거나 멀리 돌아가야 한다. 우공(牛公)은 절대자이다. 갠지스 강가의 바라나시 풍경은 독특하다. 마투라 가는 길. 정말 이색 풍경이다. 덩치 큰 소 이외 말도 있다. 아니, 자동차 행렬과 돼지무리도 엉켜 있다. 사람 다니는 길에 돼지들이 엉켜있는 풍경. 어떤 때는 오리나 닭과 같은 가금류도 등장한다.

그뿐만 아니다. 원숭이 떼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곡예 하듯 옮겨 다니고 있다. 원숭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동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사람과 동물들이 섞여 있다. 마투라 불상을 보러 가는 길의 오묘한 풍광이다. 목적지 마투라 뮤지엄 가는 길의 풍경이다. 불상의 고향, 마투라.

무불상 시대 500년. 무엇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불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 500년 이상 잘 참고 있다가 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 무슨 변화인가. 불탑 독점시대에서 탑상의 공존시대로, 그러다가 불상 우위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 동양 불교조각사의 찬란한 궤적이다.

불상(佛像)을 영어로 번역할 때, '붓다 이미지(Buddha Image)'라 한다. 글자 그대로 깨달은 이의 모습이다. 불상. 불상 조성의 역사 2000년. 20세기에 이르러 불상 학자들이 나와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불상 연구의 학문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불상 기원설이다. 어디에서 누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가.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이 있다. 마투라와 간다라. 간다라설은 알렉산더의 인도 침공 이후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주로 서방세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술사적으로 간다라 불상의 우수성은 정평이 나있다.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과 불교철학의 만남이라는 특징을 내세운다.

외부 영향의 간다라 기원설에 맞서는 학설로 인도 자생의 마투라 기원설이 있다. 이는 인도 학자가 주장하고 있다. 인도 민족의 자생론과 외부 영향론, 이 양대 학설. 불상은 과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을까.

마투라 불상을 한자리에 모아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마투라 뮤지엄, 한적하면서 소박한 분위기이다. 뮤지엄은 석조작품으로 가득하다. 사암 성분의 돌로 이루어진 숱한 조각들. 마투라 조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조각은 주로 인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람 모습. 물론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 신상(神像)이리라. 이방인의 눈길을 강하게 끄는 곳은 불상 코너보다, 불경스럽게(?), 힌두교 조각, 그 가운데도 약시 부분이다. 약시는 힌두교의 여신이다. 약시상은 진열작품의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듯 여체를 모델로 하여 아름답게 뽑아냈을까. 건강한 우아함과 높은 품격 그리고 탁월한 조형감각, 이 같은 찬사를 위한 찬사, 더 이상 감탄사가 필요할까. 관능미의 극치, 이런 표현이 적합할까. 세속적 표현으로 '쭉쭉 빵빵', 하여 S자형의 굴곡진 볼륨과 박진감 있는 사실적 표현, 걸작의 행렬이다. 약시 조각은 나체이면서 여체의 성징을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다. 약시는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음부까지, 곡선미와 더불어 관능미까지 겸비하고 있다.

과연 신상이 맞는 것일까. 미스 월드 같은 미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투라 지역 조각의 건강한 표현력과 상상력은 미술사를 풍요롭게 한다. 특히 힌두교 조각에서 그렇다. 이런 솜씨가 불상 조각으로 이어져 빼어난 걸작으로 이어졌다. 늘씬한 약시 부조가 불교의 스투파를 장식하고 있다. 마투라 뮤지엄에 진열된 약시 조각만 보아도 뭔가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다.

"마투라 건축은 이슬람교 침입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어 이 시대의 건물은 한 예도 찾아볼 수 없다. 마투라의 스투파는 아마 그 이전 스투파들의 형태에 기초하여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다른 스투파들과 마찬가지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둥들에는 보통 고부조로 약시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 약시상들은 전시대의 어떤 상들보다도 현란하고 관능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 미인들은 마치 창부처럼 거리낌 없이 도발적인 아름다움과 환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약시상들은 바르후트나 산치에서 볼 수 있던 흐름이 절정에 이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충실한 형태같이 그럴 듯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또 몸과 팔다리는 능숙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전과 같이 개별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풍요의 여신상들은 보통 몸이 중심축에서 세 번 꺾인, 격렬한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결치듯 움직이는 자세와 꽃과 같은 우아한 손 모양은 인도 춤의 자세에서 따온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관능적인 여인상들은 어떤 목적으로 불교 스투파에 조각되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 상들은 평화로운 불타의 세계 바깥쪽에 있는 세속계의 무상함을 신랄하게 표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성적 결합을 암시하고 있는 이 약시상들은 후대 힌두교 미술의 미투나상들처럼 영혼과 신적인 것의 결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2-3세기의 마투라 불상들은 간다라의 로마식 옷주름을 조아하게 모방하고 있지만, 그 밖에는 이렇다 할 서방의 영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 벤자민 로울랜드, 〈인도미술사〉 中



마투라 뮤지엄에 전시된 카트라 출토의 좌상. 전형적 우견편단식의 불상에서 당당한 붓다의 모습을 본다.

무불상 500년, 불탑 시대서
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나
무불상서 불상 우위 변화는
불교조각사의 찬란한 궤적

불상 간다라 · 마투라 기원설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선
민족양식 중요성 상기해야

명해설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나는 벤자민 로울랜드의 해설을 생각하면서 마투라 뮤지엄을 거닐었다. 진열된 작품마다 각각의 개성적 발언을 들려주는 듯했다. 진열실에는 '카니슈카 입상'도 있다. 마투라 지역에서 출토된 석조작품이다. 불행하게 상체는 망실되었지만 하체부분만 가지고도 당당하면서 개성적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오른손은 기다란 칼을 들고 있고, 외투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왕중왕 카니슈카 폐하.' 카니슈카는 주화(鑄貨)에도 이미지가 남아 있는 바, 양자 흡사하다. 마투라 뮤지엄 소장 불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으로 카트라 출토의 좌상(높이 69cm)을 들 수 있다.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광배를 두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는 붓다의 모습이다. 오른손은 들어 손바닥을 보이고 있고, 왼손은 거의 직선으로 꺾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옷은 오른쪽 어깨를 노출시킨 전형적 우견편단식이다. 대인풍의 당당한 풍모에서 민족적 건강성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마투라 출토의 '불두(높이 57cm)'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머리 부분만 남아 있어 아쉽게 하지만, 단순미와 함께 불상 작가의 자신감을 자아낸 저력이 주목하게 한다. 원형에 가까운 두상, 거의 일(一)자 형식으로 길게 강조한 눈썹, 은행알 같은 눈동자, 약간 부서지기는 했지만 작게 표현된 코, 그리고 작은 입술, 이런 이목구비에 비하여 머리의 괴체감이 주는 무게는 육중하다. 특히 단순 처리된 살상투와 헤어스타일, 전체적으로 단순미와 함께 둔중한 양감을 전해 주고 있다.

그리스 신상들은 이상적 형태로서의 인체미를 자랑했다. 신상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인체의 미를 추구했다. 8등신의 비례를 보이는 비너스의 경우가 이 점을 입증한다. 이상적 인체미, 이는 유럽 인물 표현의 교과서처럼 작동해 왔다.

반면 마투라 불상은 이상적 인체 표현 이전 깨달음의 존재라는 정신적 차원을 강조하려 했다. 즉 붓다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래서 보통의 인물과 다른 신체상의 특징을 크게 32가지로, 세밀하게는 80가지로 특화시켰다. 32상(相) 80종호(種好)는 이래서 불상 도상학의 범본이 되었다.

사실 32상 80종호에 의거한 불상 조각은 어렵다. 너무 특이한 특징들이 많아 결과적으로 괴이한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런 부분은 신앙적 혹은 정신적 차원의 상징성으로 이해하게 한다. 어차피 인간의 모습과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가 아닌가. 후대로 갈수록 불신(佛身)에 대한 신앙과 조형의식은 발전되었고, 보다 구체화되었다.

마투라 불상. 국제양식 계열의 간다라 불상에 비하여 민족적 양식이라고 분류되는 마투라 불상. 여기서 미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생각하게 한다. 특정 지역에서 개성적으로 발전된 양식과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의 보편성. 이것의 경계선 찾기는 쉬운 일 아니다. 문화와 예술은 상호간 주고받으면서 변화 발전한다. 경우에 따라, 특수성과 보편성은 상호 교차되기도 하고 교합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민족양식의 고귀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민족 자생의 독자성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나는 마투라를 걸으면서 민족양식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생각했다.

길을 걷는다. 마투라의 길을 걷는다. 초기 불상을 배관하고 마투라의 어수선한 길을 걷는다. 아, 이런, 돼지들이 길을 막고 있구나. 나무 가지 위의 원숭이들은 나그네의 열린 가방 속을 노리고 있고.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원효대사

"〈別記〉, 中 법장 영향 받아 후대 재편집"

최연식 교수, 동국대 HK연구단 주최
원효 탄신 1400주년 국제학술대회서

현재 전해지는 원효의 저술인 〈대승기신론별기〉가 그의 가장 이른 시기 저술로 간주되는 〈기신론기〉를 토대로 후대에 재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사진〉는 5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주최로 열린 '원효성사 탄신 1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에서 '〈대승기신론별기〉 성립에 대한 새로운 이해' 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대승기신론소〉가 〈별기〉를 종합 정리한 것이라는 기존 해석과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별기〉가 〈소〉에 앞서 찬술한 것이 아니고, 〈기신론기〉를 모태로 하되 중국 법장의 〈의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원효의 〈소〉는 법장의 〈의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의기〉는 〈별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별기〉가 곧 '원효-법장' 융합형태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별기〉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서술 양태를 꼽았다. 그는 "〈별기〉는 본문 전체를 고르게 설명하는 〈소〉와 달리 본문의 적지 않은 부분에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특정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긴 분량의 설명을 제시하는 특이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구체적 서술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서술 양태 등
원효 입적 후 재편집 가능성
원효-법장 융합형태 시발점"

도 전후맥락에 맞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원래의 문장에 후대에 새로운 내용이 맥락에 맞지 않게 추가 삽입되면서 전후맥락의 연결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원효 저술들의 체계적인 서술 모습을 볼 때 현재의 〈별



기〉는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별기〉는 원효가 찬술할 당시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 혹은 삭제돼 재편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법장의 〈의기〉에 명시된 '별기' 는 법장 자신의 다른 저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의기〉에서 별기에 서술됐다' 는 원효의 〈별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기〉의 (재)편찬자가 〈의기〉에서 '별기' 를 언급하는 문장에 주목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별기〉는 〈의기〉에서 언급한 '별기' 가 아님에도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별기〉가 후대에 재편집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별기〉는 언제 재편된 것일까? 최 교수는 원효가 입적한 687년 이후부터 동대사의 사경문서(寫經文書)에 기록된 원효의 〈별기〉를 일본에 가져간 심상이 신라에 유학한 시기(720~730년대 추정) 사이로 봤다.최 교수는 "〈소〉가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의 〈기〉라는 이름을 일부러 〈별기〉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기신론)기〉라는 책의 이름을 〈(기신론)별기〉로 바꾼 것은 〈소〉에서 언급된 '별기' 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며 "본래의 〈기〉를 새롭게 편집한 후 그 이름을 〈소〉에서 세 차례 거론되고 있는 〈별기〉로 바꿨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기〉로 재편집된 배경으로 법장 사상의 영향을 제시한 뒤 "학인들 사이에서 원효와 법장의 〈기신론〉 이해가 중시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양자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생겨났고, 그것이 〈소〉의 출현 이후 사람들의 주목에서 사라졌던 〈기〉에 법장의 사상과 부합되는 내용을 추가해 재편집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내시 부인은 왜 불상을 조성했을까

동불연, 27일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상 학술대회

2012년 〈미술사학연구〉 제274호에는 눈여겨 볼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선일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이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등을 조사 · 연구한 결과, 해당 불상이 죽은 내시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부인이 시주해 만든 조선 후기 불상이라는 주장을 했다.

발원문에는 한 씨라는 여인이 남편 승록대부 나업에게 "극락에 가서 환생해 함께 아미타불을 뵙자"는 보내는 서원이 담겨있다. 또한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초안 스님임이 밝혀졌다.

내시 부인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연구한 결과를 한 자리서 만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단일 불상을 놓고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오는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내시와 불멸의 사랑을 서원해 화현한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속초 보광사와 목조지장보살좌상(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발견 복장 전적 연구(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에 관한 고찰(송미경 · 배순화 서울여대 교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의 재질 및 연륜연대 분석(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발원자 연구(권순삼 은평향토사학회 연구위원) 등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이병욱 강사, 원효학술상 우수상 수상

교수 수상자 無…학생 부문 김태수 · 정헌 스님



제8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이병욱 고려대 강사(비전임 부문 우수상 · 사진)와 김태수 서울대 박사과정(학생 부문 은상),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정헌 스님(학생 부문 동상)이 각각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심사위를 열고 제8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는 교수 부문 수상자가 없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불교사상에 내포된 사회사상을 조명한 저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로 비전임 교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술상 운영위는 "불교사상 속에서 사회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양의 이론이나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한 점이 돋보인다"며 "이는 불교사상 속에 내재된 사회사상적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학생 부문에서는 김태수 서울대 박사과정이 영어 논문 '용수 사구 논리에 대한 로빈슨식 해석의 타당성 : 귀류논법과 헤겔 변증법의 대비를 중심으로' 를 통해 은상을,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정헌 스님이 논문 '염불선 연구 - 청화의 염불선을 중심으로' 로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5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렸으며, 비전임 교수 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 400만원, 학생 부문 은상 수상자에게 250만원, 동상 수상자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각각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수행 친철한 입문서 '나무아미타불' 번역·발간

日불교사독서회, 26일 고불식

일본 민예연구자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불교의 염불수행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이다. 그는 1951년 〈대법륜〉에 불교 입문서인 '나무아미타불' 연재를 시작해 1955년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야나기 무네요시의 친절한 불교 입문서 〈나무아미타불〉이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10년 간 번역 끝에 발간됐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목우선원에서 〈나무아미타불〉 번역 · 발간을 기념하는 고불식과 '한 · 일 정토사상의 비교'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정토종의 종지는 불교의 근본사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비롯해 박오수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과정의 '서원과 미',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렵던 한문 불서, 한글로 쉽게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종 간행



어렵게만 느껴진 고승들의 한문 불서를 한글본으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범망경고적기〉, 〈석가여래행적송 ·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 〈법화영험전〉, 〈송계대선사문집 · 상월대사시집〉, 〈선문오종강요 · 환성시집〉 등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종' 을 간행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체 14권 총 324종에 달하는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지난 2010년부터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총 300권 발간을 목표로 역주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종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신라의 고승 태현이 찬술한 〈범망경고적기〉는 〈범망경〉 주석서로, 이는 법장의 주석서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묵 무기가 저술한 〈석가여래행적송〉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불교 전래사를 2권으로 기록한 저술이며, 함께 묶은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은 〈석가여래행적송〉 가운데 출가수행자들이 경책으로 삼아야 할 다섯 부분을 발췌해 서술한 것이다.

또한, 요원이 저술한 〈법화영험전〉에는 중국의 동진(東晋) 때부터 당(唐) · 송(宋)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로부터 고려까지를 포함한 총 118가지 영험담이 수록돼 있다. 〈법화영험전〉은 각 이야기의 중심인물과 시대, 장소 등을 밝히고 있어 단순한 설화를 넘어 생생함이 느껴진다.

〈송계대선사문집〉은 자연을 좋아하고, 산사에서 소요 자재하는 삶을 살았던 송계대사가 머물렀을 사찰의 아미타불, 석가불, 약사여래상, 사천왕상을 표제로 한 일련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상월대사시집〉에는 조선 후기 승려들과 그들의 삶, 당시 불교계의 사정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으며, 조선시대 고승이 북두를 숭배한 최초의 사료상의 등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환성 지안(1664~1729)이 짓고, 그 제자 함월 해원(1691~1770)이 편찬한 〈선문오종강요〉는 육조 혜능의 법계를 이은 다섯 종파, 즉 임제종 · 운문종 · 조동종 · 위앙종 · 법안종의 핵심 내용(綱要)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환성시집〉은 〈선문오종강요〉를 저술한 환성 지안의 시문집이다. 시 144편과 제자 함월 해원이 쓴 '환성 화상 행장' 으로 구성돼 있다. 환성의 시는 소박하면서도 정감어린 시어(詩語)들은 어린아이의 동요 같은 느낌을 주고, 때로는 정 많은 노인의 넋두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이번 도서 간행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원융종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2일 학술대회 개최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의 종단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원융종은 오는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 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창종 40주년을 맞는 원융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포교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은 논문 발표들이 이뤄진다.

원융종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조심스레 내딛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수행 ·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생활 그대로 진리일 수 있게

생활시도(生活是道) 라는 말이 있다. 우리네의 일상생활 그대로가 드러나 있는 진리라는 뜻 일게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뜻도 생활 주변에서 밉고 곱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그대로가 진리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일터. 다만 여기서 방점을 찍어 살필 일은 머물되 머묾에 집착 않는 무주상(無住相)의 교훈이 실천적으로 하나를 이룰 때 생활이 도(道)요, 평상심이 진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앓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병의 원인은 대개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모으고 당기며 쌓아두려는 소유욕이 걱정 근심을 키우며 재앙의 씨앗이 된다.

내가 이럴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이해와 섭수의 포용력은 다툼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에 이르게 한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과 원망의 불길이 용서와 이해로 잦아들 수 있는 것이다.

나눔과 베품을 생활 속서 실천하길
주위가 행복하도록 자신을 바꿔라

내 것이어야 하고 내 편이어야 하고 나의 소유여야 한다며 나를 중심으로 한 아집(我執)의 편애증상은 화(禍)를 키우고 재앙을 불러들인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의 기능만 삭아 내리는 게 아니다. 마음도 서늘하게 용기와 의욕을 멀리한 채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마음의 실타래가 다 풀리기 전에 마무리 하는 아름다운 회향이 있어야 한다. 가진 것은 나누고 베풀며 생활의 언어로 실천해야 한다.

이해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애어보시(愛語布施)'를 일상의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기도, 미안해하는 눈인사는 하면 할수록 아름답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고된 그림자만 남긴 채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야할 우리네 삶의 종착역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미련도 후회도 뱀의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두어 방울의 눈물방울 남기며 한바탕 잘 놀다 간다며 엷은 미소 남길 수 있게 개운한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일이다. 막힌 곳은 뚫어 주고 맺힌 곳은 풀어주며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마음 덮여주며 군불 지펴주며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의 지혜자가 되어야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간다. 종교에 접근하고 신앙에 발돋움 하는 것도 보다 나은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잘못 선택한 종교와 바르지 못한 신앙 행위로 인하여 재산 잃고 명예 잃고 삶의 길이를 줄이는 어리석은 행위는 주변에 널려 있다.

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날이 갈수록 그 시야를 넓혀야 한다. 마음의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일궈야한다.

생각이 바뀌므로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므로 세상이 열리는 믿음의 생명력을 키워가야 한다.

하여, 나무로 만든 목불(木佛)과 돌로 만든 석불(石佛)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몇 백년 된 나무의 창창한 모습에서 건강한 자연 부처의 모습을, 바위의 늠름한 형상에서 믿음의 천연부처를 발견하는 마음의 눈높이를 넓혀야 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법당과 기도 도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초가삼간의 초라한 집이, 아파트의 주거공간이 최고의 법당이요 기도드리는 도량임을 알게 될 터이다.

내가 극진히 모시고 경배드릴 분은 법당의 부처님보다 나의 부모요 반려자이며 아이들의 가족임을 깨닫게 될 터이다.

이것이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주지삼보(住持三寶)에서 별상삼보(別相三寶)로, 더 나아가 동체삼보(同體三寶)로 신앙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이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식도 좋겠지만 우선은 가정이 평화롭도록 가족이 행복하도록 내 자신이 생각 바꿔 마음 열고 살 일이다. 평상심이 도(道)가 될 수 있게, 생활이 그대로 진리가 될 수 있게.

木佛을 태우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단하천연(丹霞天然:739~824) 선사는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러 장안으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불법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포기하고 출가를 하였다고 알려진 스님이다.

처음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를 친견하고는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를 찾아가 3년의 지도를 받은 뒤 다시 마조 선사 문하로 돌아와 공부하였다.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 불상의 목에 걸터앉았다. 이상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중이 깜짝 놀라 마조 선사에게 고했다. 마조 선사가 법당에 들어가 보고 "참으로 천연스럽구나!"하였다. 이 말에 단하 선사가 내려와 절을 하고 "스님께서 주신 호(號)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천연(天然)이란 법호를 쓰게 되었다.

그는 제방을 찾아다니며 여러 선지식들과 교류했다. 한 번은 낙양의 혜림사에 가 머물게 되었다.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이었다.

그는 밤이 되어 취침을 위해 아궁이 불을 때려고 했으나 장작이 없었다. 그는 땔감을 못 찾아 법당에 들어가 목불을 안고 나와 쪼개서 아궁이에 불을 때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법당에 불상이 없어진 것을 안 원주(院主) 스님이 아궁이에 불 땐 흔적을 보고 목불을 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주 스님은 단하 선사를 사정없이 꾸짖었다.

"세상에. 목불을 쪼개 불을 지피다니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게 아니군."

단하 선사는 태연히 말했다. "난 부처를 태운 게 아니오. 부처를 태웠다면 사리가 나와야 하지 않소."

"목불에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오."

"사리가 안 나온다면 나머지 목불도 태워버려야 하겠군."

이런 말이 오고간 다음 원주 스님의 눈썹과 수염이 그만 빠져버렸다고 한다. 이상의 이야기는 〈오등회원(五燈會元)〉 5권 '단하천연장'에 소개된 이야기이다. 이후 이 이야기는 '단하소불(丹霞燒佛)'이란 공안(公案)으로 채택되어 널리 유행되었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목불을 땠다는 이야기는 높고 뛰어난 안목에서 나온 것이다. 원주 스님이 그것을 보고 꾸짖은 것은 대반야의 도리를 비방한 것이므로 눈썹과 수염이 빠진 것이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 곳도 있다.

"'원주 스님이 날씨가 추운데도 단하 선사에게 땔거리를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단하 선사로 하여금 목불을 태우게 만들고 마침내 눈썹과 수염이 빠지게 되었다' 라고들 하지만 그러나 원주는 쇠를 팔아서 황금을 얻고 일장의 부귀를 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한 것이라 하겠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또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의 설법이 소개되어 있다.

"진정극문이 법좌에 올라 단하가 목불을 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갑자기 주장자를 잡고 '이것이 목불이다' 하고 주장자를 던지며 말했다. '누가 태워 보겠는가. 그대들이 분별하여 머뭇거리면 눈썹과 수염이 빠진다.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소리를 높여 행자야! 주장자를 다시 집어 들어라 ' 하고는 법좌에서 내려왔다."

이 외에도 단하 선사에게는 공안을 이룬 일화들이 몇 개 더 있다. 단하 선사가 남양혜충(南陽慧忠) 국사를 찾아갔을 때의 일화다. 시자에게 국사가 계시느냐고 물었다. 시자가 대답하기를 "계시기는 계시지만 손님을 만나보지 않습니다." 단하 선사가 말했다. "너무나 깊고 멀리 계시는구나!"

시자가 이어 "부처님의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단하 선사가 다시 "용은, 용의 새끼를 낳고 봉황은 봉황의 새끼를 낳는구나!" 하였다.

혜충 국사가 낮잠에서 깨어나자 시자가 단하 선사가 찾아와 있었던 일은 국사에게 말하였다. 국사는 시자를 스무 방망이나 때려서 내쫓았다. 나중에 단하 선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남양국사라는 존칭을 받을 만 하구나' 하였다.

상이 없는 것이 바른 상이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⑳ 일상무상분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 能作是念 我得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수보리 어의운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수다원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何以故 須陀洹 名爲入流 而無所入 不入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
(하이고 수다원 명위입류 이무소입 불입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 수보리 어)
意云何. 斯陀含 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 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의운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사다함과 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斯陀含 名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 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 能作是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 사다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나함 능작시)
念 我得阿那含果 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阿那含 名爲不來 而實無
(념 아득아나함과 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불래 이실무)
不來 是故 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 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不.
(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의운하. 아라한 능작시념 아득아라한도 부)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實無有法 名阿羅漢. 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
(수보리언.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약아라한작시념 아)
得阿羅漢道 卽爲着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三昧人中 最爲 第一 是
(득아라한도 즉위착아인중생수자. 세존 불설아득무쟁삼매인중 최위 제일 시)
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 我得阿
(제일이욕아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욕아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아)
羅漢道 世尊 卽不說 須菩提 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實無所行 而名須菩提
(라한도 세존 즉불설 수보리 시요아란나행자. 이수보리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수다원은 범어(梵語)이며 한자로는 거슬러 흐름(逆流)으로 중생의 생사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서, 6근과 6진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고 일심으로 분별망념을 여의어서, 거칠고 무거운 망념의 세계인 축생, 아귀, 지옥의 몸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의 흐름(聖流)에 들어갔다 함은, 수다원은 무색계의 공무변처정과 보살 10지 가운데 초지의 환희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망념을 여의고 성인에 들어간 것은 수다원이 아니고 이 마음이 성인의 경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다원이므로 수다원이 아니고 수다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수다원이 아닌 것이 진공(眞空)이고, 수다원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묘유(妙有)이며, 이 묘유는 수다원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마음의 별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一往來)는 것으로 실은 가고 오는 것이 없는 것은 이름이 사다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다함은 한역(漢譯)으로 일왕래(一往來)이며 한번 갔다 온다는 뜻으로, 인간 세상에서 죽은 후에 천상에 태여 나고 천상에서부터 다시 인간 세상에 태여 나서 마침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므로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모든 경계를 볼 때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 한번 멸하는 것이 있으나, 제2의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일왕래입니다.

앞생각이 분별망념을 일으키나 뒷생각이 곧 그치며 앞생각은 있지만 뒷생각을 곧 여의기 때문에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그러나 가(往)는 것은 오(來)는 것으로 인하고, 오는 것은 가는 것으로 인하므로, 가는 것과 오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추명사 를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괘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 강의 및 감정요일 ◀
대구 : 월, 화, 수
(오전 10시 부터 ~ 오후 3시까지 방문요망)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12길 30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0-9217-2237

"통합불교 지향 조계종, 종파라 보긴 어려워"

반야불교문화硏, 2017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계종 '통합불교' 특수한 모습
19C 후 산신각 및 칠성각 등장
한국불교 기복신앙 현대 과제
"한국불교 발전 가능성 높아"

인도를 비롯한 남방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국가별 불교 신행과 전통을 비교 고찰하고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통합불교로 특수한 종파적 모습을 갖춘 종단이라고 언급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현대 한국불교의 과제로 '기복신앙'을 꼽았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5월 1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을 설명하며 "조선후기 이래 통합종단을 표방하며 성립한 종파가 바로 대한불교조계종이며 조계종은 선(禪)·화엄(華嚴)·천태(天台)·염불(念佛)·밀교(密敎)·의식(儀式)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통합불교"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교수는 "종파라는 것은 가령 선종,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등의 사례로 보듯 불교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집단인데 조계종은 엄밀히 말해 종파라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실상 또 종파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불교 도량에 산신각 및 칠성각은 19세기 이후 세워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복신앙적인 형태를 차츰 줄여 나갈 수 있는 지성을 갖췄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국가다. 앞으로 불교를 더욱 명확히 연구하고 부처님 당시의 핵심 가르침을 살려 기복적인 모습을 없애고 건전한 불교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강조했다.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불교는 문화혁명 이후 생활선을 정립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저력을 볼 때 큰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놀랍기도 하다"며 "하지만 저런 모습이 불교인가하고 반문할 때가 많다. 자본주의 형태로 운영되며 스님은 월급을 받고 정치와 결탁되어 있다. 그러나 절을 찾는 사람들의 신심은 순수해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중세 신불교 조사들의 신행관을 설명하며 "도겐·신란·니치렌 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고대 말 왕권이 쇠퇴하고 무사들이 정권을 잡던 말법 사상이 유포됐던 시기였다"며 "민중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대승불교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5월 1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조계종은 통합종단을 표방한다. 종파라 말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안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탐진치 소멸이며 현대사회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는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환경을 보존하고 일반 세상 기준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각 나라의 불교현실을 들여다보면 현대사회 동력인 탐진치를 극대화한 경제형태로 구조화되고 있다"며 "불교가 오히려 경제구도인 상업화를 벤치마킹한다. 중국과 대만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제시하는 것인지 고찰해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에서 생활선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박물관 혹은 기념관처럼 절이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된 수행문화는 한국이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인도불교의 신행과 현대적 시사점-초기경전을 중심으로(고려대 조준호) △중국불교에서의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충남대 김진무) △조선후기 불교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순천대 이종수) △일본중세 신불교 조사들의 신행관?도겐·신란·니치렌을 중심으로(원광대 원영상) 발표됐다. 각 발표에 이어 논평자로는 동국대 김한상 교수, 부산대 안경식 교수,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 창원대 송재근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종합 토론에서는 지안 스님이 함께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聯,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입재식을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작년 자료사진

재가자들의 90일 안거 수행 결사가 시작된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입재식을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해 108배 후 안거 수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2부 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문을 열어 회장 심산 스님이 인사말씀으로 안거 수행에 참여한 재가자들을 격려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문으로 안거에 참여한 재가자들에게 수행에 참뜻을 전할 계획이다.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은 6월 9일~9월 5일 90일 동안 진행되며 안거 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 신도는 참가 가능하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재가 안거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동참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여여힐링선원, 자선 禪서예 소장전

5월 29일~6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 여여힐링선원은 5월 29일~6월 1일 '불자 자선 선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청담 스님의 마지막 유작 '佛'

부산 여여힐링선원이 자선 禪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여여힐링선원은 전시 수익금 전액을 암환자 치료비로 후원하고 캄보디아 학생에게 자전거를 선물한다.

부산 여여힐링선원(선원장 효운)은 5월 29일~6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불자 자선 선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작품은 역대 종정을 역임한 대선사 스님들의 유작들이 선보여지며, 특히 초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 스님의 마지막 유작도 선보인다. 아울러 서옹 스님, 서암 스님, 월하 스님, 석정 스님, 경봉 스님, 탄허 스님, 월서 스님, 수안 스님, 정여 스님 등 200여개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외 황산 이수백 선생의 도자기와 남곡 김영국 선생의 서예초대전도 함께 개최된다.

동래구불교聯, '孝心'으로 한마음

5월 14일 명륜초에서 경로잔치… 1000여 어르신 참석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는 5월 14일 명륜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참가한 어르신이 노래 공연에 맞춰 흥겨운 몸짓을 하고 있다.

부산동래구가 효심으로 하나가 됐다.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는 5월 14일 명륜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경로잔치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인 경선 스님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부회장 효문 스님·박종원 초대신도회장, 이진복 국회의원, 전광우 동래구청장 등 동래구 지역구 내빈들이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건강을 발원했다.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은 운동장에 마련된 밥차에서 바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과일, 떡, 음료를 즐겼다. 아울러 다채롭게 마련된 공연을 보며 박수치고 노래하며 흥겨워했다. 무대는 통도사 시명 스님의 찬불가, 가수 엄재원, 최태용, 한송이 등이 참여했으며 어르신들의 흥에 맞춰 트로트 및 민요 등으로 꾸며졌다.

앞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창립 후 처음으로 신도회장을 임명했다. 임명 후 이날 공식행사에 처음 참석한 박종원 대표이사는 "임명 후 공식적으로 어르신들께 인사드린 것은 처음"이라며 "제가 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했다. 수의를 오늘 1000벌을 선물로 마련했고 음료수와 수건도 마련했다. 수의를 준비하는 미풍양속 의미가 만수무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며 앞으로도 스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지역구 총 16개 가운데 그 어느 구 보다 활성화된 곳이 동래구"라며 "특히 오늘은 경로잔치로 나눔행을 펼쳤다. 백행의 근본은 효다. 그 근본을 실천하고 따뜻한 세상을 이루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더 없는 기쁨"이라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 개최

BBS부산불교방송, 6월 3일 삼정더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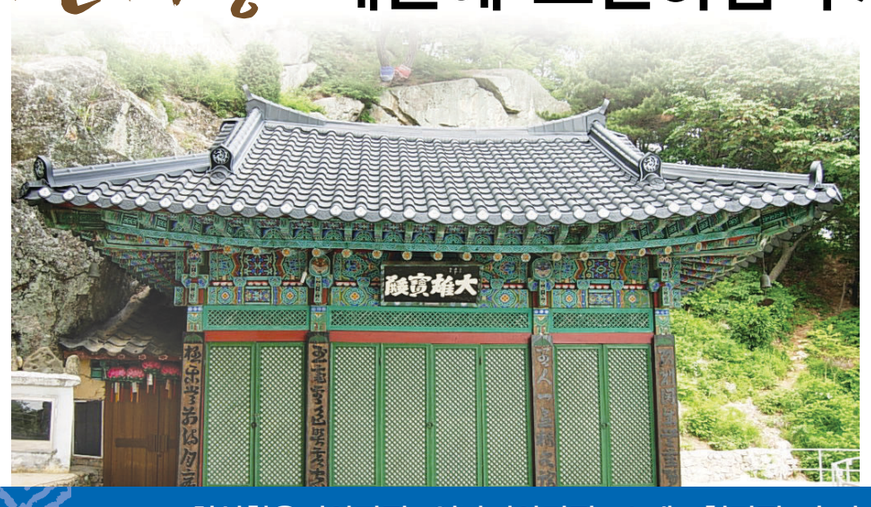

BBS부산불교방송은 6월 3일 오전 10시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작년 자료 사진

문학과 그림 그리고 사진으로 자신의 꿈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열린다.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3일 오전 10시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우천 시 6월 4일로 연기된다.

접수 신청은 온라인(https://www.moonye.net)으로만 가능하며 3000명 선착순이다. 참가부문은 글짓기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며 그리기 및 사진촬영 등이다. 참가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남원 돼지감자로 직접 만든 스님 자장면이 제공된다. 시상은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부산지방경찰청장상 등 300여 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며 ? 발표는 6월 16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051)797-5114 하성미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① / 2단 합동위패② / 3단 합동위패① / 용전대① / 용전대② / 목걸이마이크① / 목걸이마이크② / 축원카드 보관함 / 소대위패① /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도법사 수원 스님에게 내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국 향수 달래는 산사 템플스테이

부안 내소사, 5월 13~14일 네팔 노동자 초청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5월 13~1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출신 노동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네팔출신 노동자들은 예불, 전나무 숲길 걷기명상,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다도, 관음전 참배 등 한국의 전통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스님과의 대화시간에는 네팔의 부처님오신날 풍습 등 한국과 네팔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네팔의 찬불가를 합창하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새벽 예불 후에는 전나무 숲길에서 걷기명상을 하며 한국의 산사에서 맞이하는 새벽을 만끽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신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을 지도한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수원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출신이라 더 반갑다"며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불교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람 마니(32) 씨는 "새벽 예불 후 전나무 향기가 가득한 전나무 숲길에서의 명상은 환상적이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방 의무 노고에 감사를…"

호국 의상암, 군 장병 위문법회 봉행



공군 8351부대 호국 의상암(지도법사 여산)이 부대 장병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5월 10일 부대 내 관사 앞마당에서 열린 위문법회는 박용수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들과 내소사 템플스테이 담당 수원 스님, 장병 및 가족,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문법회를 주관한 여산 법사는 부대 장병과 주민들을 위해 음료, 식사와 함께 푸짐한 바비큐 파티를 제공했으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에게는 피자 등의 간식을 전달했다.

식사 후에는 신유민 탑 밸리댄스팀과 아리랑 문화예술단 등이 출연해 밸리댄스, 노래, 각설이품바 공연을 펼쳐 장병들을 즐겁게 했다. 또 여산 법사는 깜짝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장기를 가진 장병들이 출연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행사 중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산 법사는 "모처럼만에 장병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두 함께 건강하게 군 생활에 임하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흥겨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군 호국 의상암은 의상, 원효 스님 등이 수행했던 변산의 부사의방이 있는 곳으로 한동안 방치됐던 법당을 여산 법사의 원력으로 최근 복원했다. 현재 부안 내소사와 여산 법사가 격주로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맑은 물, 아이들에게 감로수 되길"

전북 마하연승가회, 베트남 초교 급수시설 준공

"부처님의 감로수를 어린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랑과 용서로 행복을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곳에 흐른다."

–마하연–

전북지역 스님들이 베트남 초등학교에 부처님의 감로수를 전했다.

승가의 단합과 사회 대중을 위한 봉사단체인 전북 태고종 마하연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는 5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탄 텅호이 초등학교(교장 웬방썬)를 방문해 한국산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고 식수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식수대 준공식에는 회장 승천 스님을 비롯해 김제 용봉사 법전 스님, 김제 쌍용사 정수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익산 관음사 정수 스님, 천안 도광사 도공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대전 금강사 동언 스님, 마하연원주보살회, 정읍 일광사 신도들과 호치민 정부관료, 교육부 관료, 영험사 부주지 스님, 학생 및 학부모 600여명이 참석해 식수대 준공을 축하했다.

지난해에도 이곳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한 바 있는 마하연승가회는 어린 학생들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식수대 건립 지원 협약을 맺어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승천 스님은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 간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도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 등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호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 15일 탄 텅호이 학교서
한국산 정수기 · 식수대 마련
지하 80m 암반수 끌어올려
오염된 식수 문제 해결해

스님은 또 "베트남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감로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웬방썬 교장은 "한국 태고종 마하연승가회에서 이번에 설치한 정수기를 통해 마음껏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과 베트남 스님이 새로 설치된 식수대에서 맑은물을 받아 시음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하연승가회

마하연승가회의 해외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베트남 식수대 건립사업은 탄 텅호이 초등학교가 1호다. 식수대와 정수기 설치 총 공사비는 미화 8,811달러가 소요됐으며, 지하 80m에서 퍼 올린 암반수를 한국산 정수기로 정수한 후 냉각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하연승가회는 준공 후에도 연 5회 정도 정수기 필터와 연수기 필터 교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마하연승가회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이 3차례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했고, 베트남 현지 '불모를 만드는 사람들' 산하 불교예술원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지 조사, 정수기 시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준공식이 마련됐다.

마하연승가회는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베트남산 안남미를 국제구호로 원조 받았던 인연을 되새겨 민간 교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감로수를 전하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수기와 식수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학 어우러진 템플스테이 '성큼'

고창 선운사 5월 15일 문학템플스테이관 상량


문학템플스테이관 상량에 앞서 스님들이 의식을 올리는 모습.

고창 선운사가 (구)자연의 집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중 숙소동인 선휴당을 상량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5월 15일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범여 스님, 초기불전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총무 심학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템플스테이 체험관 '선휴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상량식을 가진 문학템플스테이관은 대지 1,450평(4,785㎡)에 조성되는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3동 중 2번째 건물이며 전통한옥 형식에 건평 132㎡ 규모다. 선운사는 회의실과 주요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방 60평(198㎡) 건물 1동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학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템플스테이 활성화는 물론 기도객 증가로 인한 방사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선운사는 전망하고 있다.

문학템플스테이 체험관은 완공 이후 한국불교 문화체험과, 불교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또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재가제자 서정주, 조지훈, 신석정 등 당대의 시인들과 관련한 문학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윤 5월을 앞두고 생전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정유년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5월 7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고창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승가대 학인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원사 영유아 어린이 수계

영유아 어린이들이 계를 받아 새싹 불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졌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는 5월 13일 대웅전에서 '제4회 영유아 어린이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불교의 인연을 심어주고자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계아사리 지각 스님을 비롯해 일명 스님(신광사 주지), 지장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이 자리서 스님들은 영유아 30여 명에게 계를 내리고, 함께 참여한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지장 스님은 "어린 불자들이 이제 계(戒)를 받았으니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앞으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수계 법사단 등단에 이어 삼보사찰 청정수 합수, 관정의식, 수계증 증여, 연비, 단주 수여, 기념사진 촬영, 아이들 축원, 탑돌이 등이 이어졌다. 행사 후 참여 가족들은 사찰음식을 즐기고 스님들과의 대화마당서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보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한 가지 가르침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후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온다. 악(惡)도 화(禍)도 모두 오고 가며 보복(報復)의 지팡이는 네 머리 위에 내려진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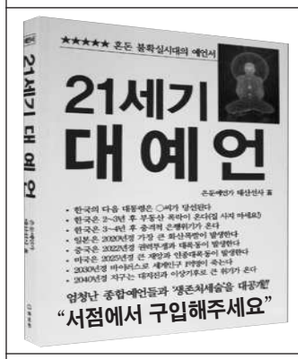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기도수행 하실 분. 개인지도함.
055-382-2108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세계최고 **필립스 면도기**
신제품 : 물로 세척(방수)
3헤드 / 3시간 충전 / 6일사용
홈쇼핑가 18만원 ▶ 파격가 9만원
칼라 영정사진
고급액자 (20×25㎝) 5만원
이청하 010-8561-8253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금강경 반야심경을 써드립니다
금니(순금99%)도 가능, 별도상담
금강경(10폭) 심경(단품, 6, 8폭)
한문과 불교를 공부할분 연락바랍니다. 수강료 10만 (5명) 주, 2회 화금 오후4시. 승려시인, 선화, 한학, 서예가
포항 남구 인덕동 262
010-3749-4553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스님들을위하여불사나 선물용으로 저렴하게그려드립니다
규격 : 40cm * 60cm / 가격 : 6,000 원
(고급 족자에 그리면 15,000원)
10매 이상은 절이름과스님법명을 넣어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010-4749-6577

토굴에서 함께 용맹정진 (묵언, 1종식)할 도반을 모십니다
010-2897-614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경험 有)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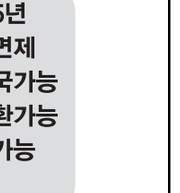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각 60만원
월령도,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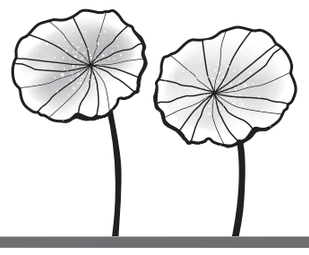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 법구경 -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서울시 중랑구
- 총 3층의 2층 74.64㎡ (약23평)
- 방 1, 주방, 법당, 실내욕실 등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
- 물건사진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공양간.산신각
- 토지 40㎡
- 마을에위치 교통편리. 남향이며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북 성주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2,945㎡ (890평)
- 검물총면적 : 234,76㎡ (71평)
- 가액 : 3억 7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226 (쌍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6억5천
◎ 위치 : 청주
◎ 면적 : 16500평,산세수려
◎ 대형사찰부지,차량진입
◎ 대지7000평가능,남양,안대좋음
◎ 계곡접매가협의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차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좋음. 조용한사찰
- 가액 : 4억2천만원(현금2억구입)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공양간, 방 1개
- 명리, 철학 호조건, 본절 소임 관계로 양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77-429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4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 ㎡ (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길3개 등
- 가액 : 8억 5천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산세 좋은 곳
- 사천IC 15분 거리 위치
- 면적 : 부지55,000㎡, 건물 270㎡
- 법당,삼성각,요사채2동,황토방1채 용왕당, 연못, 채전밭(유실수 있음) 산과계곡,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방7,화장실4,심야전기,화목보일러
- 가액: 4억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찰안내(토굴)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초시 성읍(민속촌)
- 부지 : 400평(대지)
- 건평 : 2동 50평
- 가액 : 4억8천만원
- 특징 : 제주민속촌 내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 (2층, 단청, 청기와)
- 요사채 : 35평(1층)
- 가액 : 3억 3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된 도심 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 종교부지, 임야, 대지 약 5,700평 대웅전, 약사전, 삼성각, 노천불
- 요사채 및 황토 찜질방
- 가액 : 12억(아주 싼가격 급 양도)

010-3470-97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1,000평
- 전 1,300평, 임야 1,000평
- 법당 35평,종각,산신각,각 3평씩 (육송목재로 지은 법당)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1억

011-9324-44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918-7937

사찰(급)안내

- 위치: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 390평 법당 : 목조 13평, 요사채 : 약 26평 종무소 : 6평 산신각
- 가액 : 1억8천만원

010-3785-4384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안동 삼안공원 앞
- 3층 건물중 1층 33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신중탱화, 방, 도시가스, 냉장고, 냉 · 난방에어콘
- 주위 환경 좋음
- 시설 집기 일체700만원
- 가액: 보1500만원 월4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IC에서 바다쪽 5분
- 대지:180평 토굴 40평, 텃밭약간(창고)
- 스라브 1개 일반창고 2개
- 법당: 임법당1, 방2,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1, 실외1 합 2개
- 삼존불, 동진보살, 탱화, 칠성, 산신, 지장, 인등(108)
- 난방:심야전기보일러주차장:앞 옆, 뒤 10여대 주차가능(진료소 있음)
- 가액:1억 천만원

010-9624-2228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높은 산 칠부능선
- 암반에서 1급수 약수물 365일 사시사철 흐르고
- 가옥 40평, 25평 (2채)
- 평수 8,500평 정말 좋은데
- 가액 : 7억 5천(주인직접)
- 물물교환도 가능

010-4130-06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 법당 25평(비영리법인 등록) 요사25평, 대지 약 350평 법당자리(약 350평 터 작업완료) 산신각 자리(약 5평 터 작업 완료) 산 약 10,000평
- 마을 끝자락 기도처 최상으로 불사를 하실 분 최적
- 공찰 주지 소임으로 안내드립니다.
- 가액 : 9억(절충가능)

010-4426-68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팔달전철역에서 5분
- 요사채 40평
- 가액 : 몽땅 1억6천 (조정가능)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금산 3길 26-21
- 최신조립식법당 20평(삼존불 및 각단탱화) 관음250불 산신당, 용왕당, 요사채, 스님방(냉난방 완비) 주방2개 전기, 지하수, 나무보일러, 고추건조기, 입식화장실2개
- 임야 168평, 텃밭, 관세음석불 2천만원불사 완공
- 마을뒷산 제일높은곳, 법당앞까지 주차 10대
- 절주인 건강산 급양도(현 불사중), 몸만오시면 됨(40년된 암자)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136-70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평화1길 전통시장 번화가
- 약 50평(3층 건물 3층) 즉시 법회가능(최상급)
- 보증금 1,500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법회, 포교, 상담, 주변환경최적

010-3118-1174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69평 1층 :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채) / 2층 :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3억9천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영천시 북안면 단독 복층주택 법당
- 대지 192평, 건물 약 45평
- 1층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2, 창고, 복층 방2, 다용도실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6천포함)

010-5488-333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대지 270평, 요사채 40평 목조로 된 신 건물, 법당 17평
- ※ 군부지 약 500평 사용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924-8969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450평, 대지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외 1동(120평)
- 산속, 차량진입, 경관수려
- 가액 : 3억 7천

010-4586-4525

사찰(절암자)터 양도 상담 전문

- 양도 양수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전화주시면 성실 상담합니다

불자공인중개사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607-46-11892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관내 해발 500m
- 최상의 기도처
- 대지는 125평 완전
- 국유림내 건물 21평, 암자내 주차가능
- 지내 생수 발견 700m내 주택가 없고 삼불, 대산신 전면 호수 암자 까지 포장도 연결 거품 0%가격
- 가액 : 7,500만

010-8899-8899

도심사찰임대안내

- 위치 : 부산시
- 평수 : 70평(2층 건물) 1층 : 30평 방 3개 공양실 2층 : 25평 법당 (삼존불, 각단 탱화)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3천 월 80만원

051-413-3318

암자(급)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 대지 200평 농지 약 800평
- 사각정 2개, 물레방아 연못30평, 소나무 80그루
- 1층 가정집 30평, 방3개 화장실1개 다용도실2개 2층 법당 11평 방1개,주방1개
- 시내와 영동기차역 5분거리
- 양도가 2억5천 조정불가 급매

010-9274-18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010-4426-6867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구조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156㎡. 대지지분 156㎡ ■ 총 7개동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아궁이 10㎡ (9.1평)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日 템플스테이 '슈쿠보' 참가자 3년 새 3배

닛케이신문, 고야산 슈쿠보 선풍적 인기 조명

승려와 신도, 관광객 위한 숙소
수행 · 명상 등 불교문화체험 인기
1만9000명→5만6000명 3배 증가
숙박자 60% 외국인…만족도 높아



고야산 혜광원은 구카이 사당이 있는 오쿠노인을 심야에 둘러보는 나이트 투어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혜광원 슈쿠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한난대 학생 및 참가자들 모습. 사진출처=일본 한난대학교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야산(高野山)의 슈쿠보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슈쿠보는 승려와 신도들을 위한 숙소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들이나 신도들은 수행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다. 이른바 일본판 템플스테이다. 이러한 슈쿠보 이용자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배 증가했단 소식이다.

고야산은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있는 해발고도 약 1,000m의 산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마키봉, 호슈봉, 하치부세산, 벤텐산, 고야산, 덴지쿠산, 요류산, 마니산 등 8개 봉우리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다. 이곳은 연꽃이 핀 형상의 지형이라 하여 예로부터 불교의 성지로 전해지고 있다. 고야산 내엔 약 117개 사원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헤이안시대인 819년 홍법대사 구카이(空海)가 수행한 곳이자 고야산진언종이 태동한 곤고부사(金剛峯寺)가 일본불교 성지로 일컬어진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이러한 만큼 일본불교를 직접 체험하길 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중에서도 수행, 명상, 사찰음식 등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슈쿠보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고야산의 슈쿠보가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 내 불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몇 달 후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고 5월 12일 보도했다. 참가자 수요가 늘어 거의 매일 슈쿠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예약자가 많은 날은 수십 명에 이를 정도다.

고야산 혜광원(惠光院)은 구카이 사당이 있는 오쿠노인을 심야에 둘러보는 나이트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타무라 노부히로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이 영어로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솔, 오쿠노인으로 가는 약 2km 참배길을 순례한다. 참배길엔 삼나무로 길이 나있고 수많은 묘비들과 공양탑, 오륜탑, 석불상 등이 늘어서 있다.

혜광원의 숙박자 중 약 60%는 외국인이다. 숙박료는 1박2일에 2식 포함 약 1~2만 원 선이다. 각 방에는 슈쿠보에서의 예절, 유카타 입는 법, 고야산 역사 등이 적힌 영어 안내서와 함께 영어로 번역된 불경이 배치돼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타무라 노부히로 스님은 "외국인 투숙객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온 앨리슨 웨버(54) 씨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슈쿠보에 머물렀다. 고야산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 오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고야산슈쿠보협회에 따르면 고야산 내에 위치한 슈쿠보 52곳 기준 숙박 외국인은 2013년 1만9000명이었으나 2016년엔 약 5만6000명으로 약 3배 늘었다. 대부분 서양인 관광객들로 소셜 미디어(SNS) 영향으로 슈쿠보 문화가 널리 알려진 게 수요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설명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트럭운전사가 비구니 된 까닭은

노팅엄포스트, 비구니 스님 된 클레어 루딕 소개

영국의 트럭운전사가 비구니 스님이 돼 화제다.

영국 지역언론 노팅엄포스트는 최근 트럭운전을 하던 36세의 여성이 비구니가 된 사연을 소개했다.

클레어 루딕(36)은 6년간 40톤급 트럭을 운전사로 일했다. 어린 시절 기독교학교를 다녔던 그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클레어 루딕은 "어릴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기독교신자는 아니었다. 10대 때는 무신론자로 살았다"며 "그러다 23세 때 우연히 맨체스터의 모임에서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책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신선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살길 갈망한 것"이라며 "마음을 비우고 삶에 충실하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명상을 하고 경전을 낭독하며 생활한다. 불교는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그는 셰링엄에 있는 안거행사에 참여 후 비구니 스님이 됐다.

일본식 선불교 전통에 따라 그는 삭발을 하고 검은 승복을 입었다. 그리고 오계(五戒)를 지킬 것을 발원했다.


클레어 루딕은 6년간 40톤급 트럭을 운전사로 일하다 최근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했다. 사진출처=노팅엄포스트

처음 그가 삭발하고 비구니가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라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곧 클레어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허크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교 명상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명상모임을 진행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클레어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더 많은 문화적 활동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명상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목표"라며 "허크넬 지역의 사람들이 명상과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프랑스 선불교 사찰에 유럽 불자들 모인다

라종드호니에 사찰 개원 50주년… 유럽 각국 불자들 한자리 모여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이 최근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유럽 각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출처=zen-azi

프랑스 중부에 있는 선불교 사찰에 신도수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프랑스 언론 라크로아는 5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이 최근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유럽 각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루아르에셰르에 위치한 라 종드호니에 사찰은 국제선불교협회(IZA)에 소속된 사찰로, 일본 선불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파인 소토선(Soto Zen)을 종파로 하고 있다. 1500년대 프랑스 경제 · 문화 · 정치적 중심지였던 루아르계곡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 외진 지역에 있다.

또한 라종드호니에 사찰은 파리에 거주하던 소토선불교의 대표, 일본인 타이센 데시마루(Taisen Deshimaru) 스님에 의해 1979년 설립됐다. 1982년 타이센 데시마루 스님은 열반에 들었지만 소토선 불교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점점 확장해 나갔다.

선불교는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쉬기, 걷기, 잠자기, 먹기 등 일상의 모든 것도 수행에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침묵과 명상의 실천은 현대사회의 소란스러움과 격렬함에 맞서는 해결책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불교연합 회장인 올리비에 왕젠은 "선종은 평온함을 되찾으려 하는 자연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500여 불자들이 도착했다.

요리사인 장 밥티스테 프레작(24)은 스님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학생시절 선불교가 폭력과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고통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4년 전 나는 중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폭력성도 띠는 성격이었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기를 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당시 나보다 30살이 많은 이복형인 장피에르가 사찰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내가 가진 모든 무지와 탐욕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올리비에 왕젠은 "종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가톨릭 신자들이 선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며 일상생활에 적용, 영적인 차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종드호니에 사찰에는 매년 3000명의 사람들이 안거를 위해 방문한다. 지난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해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전통 북연주와 명상 워크숍 등을 열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부처님오신날 '베삭데이' 이색풍경 남방불교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일, 열반일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인 '베삭데이'. 지난 5월 10일 남방불교권 국가에서 일제히 베삭데이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미얀마 양곤 쉐다곤 파고다 사원에 방문한 한 커플이 베삭데이를 축하하는 초 공양을 올린 뒤 '셀피(Selfie;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박아름 기자

"中, 11대 판첸라마 석방하라"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11대 판첸라마 겐둔치아키 니마〈사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5월 17일 인도 다름살라에서 벌였다. 중국 당국은 1995년 달라이라마가 11대 판첸라마 환생자로 지목했을 당시 6세였던 겐둔 치아키 니마를 가택연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판첸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에 뒤이은 2인자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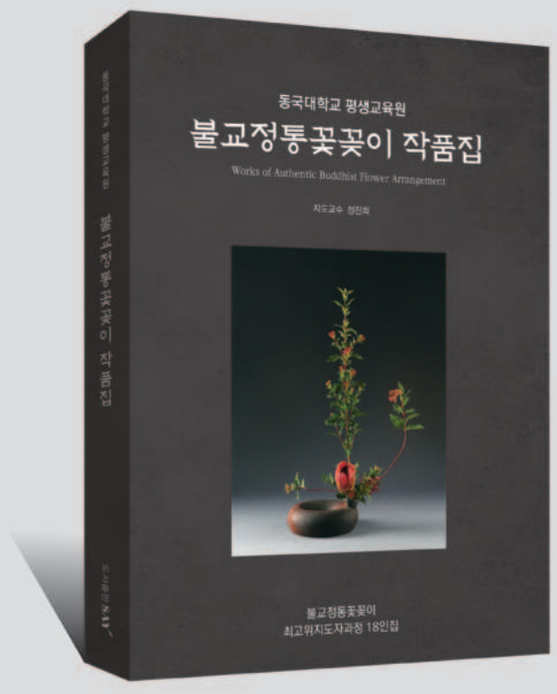

면발광 LED 인등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최고위지도자과정 18인집
불교정통꽃꽂이 작품집
지도교수 정진희



사찰꽃꽂이를 하는 분들의 필독서!

- 법당꽃꽂이 80작품
- 영단꽃꽂이 20작품
- 관욕단꽃꽂이 12작품
- 선화(禪花) 12작품 〈선방·승방꽃꽂이〉
- 가격 50,000원

구입처 010-2720-9164
010-2002-2927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3〉 생활 속의 명상

방석 위 벗어나 명상에 드는 길



내면의 각성 유지하기

시바파 요가의 전통에서 깨달은 존재는 두 눈을 뜨고도, 변화 없이 빛나는 각성의 장에 자신의 의식이 모이는 샴바비 무드라 경지에서 산다고 한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눈을 뜨고 하는 수련의 열쇠이기도 하다. 눈을 뜨고 하는 수련은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신이 실제로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련이다.

이 수련의 핵심은 내면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이 파장을 맞추는 존재나 현존의 느낌에, 자신의 각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수련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수련도 대단히 간단하다. 내면의 각성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 걱정하거나 흥분하거나 압박을 받는 것 같은 긴박한 문제가 녹아버린다. 본질적인 각성은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찰나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을 달리 해서 다양한 명상을 수련하는 것이 좋다. 각성의 빛은 직접적으로 마주칠 때도 있고, 호흡이나 신체의 자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 때도 있다.

자신의 내면에 꾸준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수련을 하거나 참자아를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수련을 골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성격을 비롯한 자신의 특성을 정리해서 수련 동기와 자세를 점검하고 참자아의 성질(자비 · 온유 · 친절 · 지혜 · 진리 등)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셋째, 자신이 언제 중심을 잃고,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눈 뜨고 수련하기

자신의 수련을 신이나 인류의 발전에 봉헌하는 것처럼, 당신의 일상생활도 하나의 기도로 봉헌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한 생활수련으로 어떻게 자기중심의 생각을 바꾸고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을 바꾸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바쁜 일과와 일정 속에서도 만트라 염송이나 각성의 알아차림, 하나됨의 기억 수련을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면 좋다. 평소에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봉헌하는 의식을 매일 두 번 해볼 수 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가슴에 의식을 모으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다. 정시 5분 전마다 손목시계에 알람을 맞추고 그 5분을 활용해서 가르침을 묵상하거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자아는 어디에 있는가?'를 참구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명상수련을 하면 그 효과를 금세 알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통합되는 느낌이 든다. 앉아서 하는 명상과 일상에서 하는 명상 사이의 차이가 줄어든다.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기가 더욱 편해지고, 일과에서 온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고 나면 일상의 깨어 있는 시간에는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을 열린 자세로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다.

자아 탐구하기

베단타의 성자들은 자신을 각성하는 수행을 '아트마 비차라(자아탐구)'라고 한다. '비차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도, 정신적인 분석행위도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요가 수행이다. 내면의 현상에 의식을 모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법이다.

비차라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심오한 지혜를 얻거나, 계시의 공간을 열거나,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거나, 참자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묵상이다. 고전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는 이런 유형의 비차라다. 이는 라마나 마하시리를 비롯한 여러 스승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둘째는 무엇이 참자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 편치 않은 감정에 휘말려들지 않고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경험한다. 그 감정과 더불어 오는 생각들을 알아차린다. 기운의 상태와 신체의 감각을 관찰한다. 그 감정의 뿌리로 올라가본다.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법한 좌절감을 살펴본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일이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내면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기운의 상태를 중단 없이 알아차리는 노력이다.

자신에게 맞는 수련법으로
중심을 꾸준히 파악한다면
시 ·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래의 자신과 어긋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인지 없이는 '나는 불편하다'는 사실만 알 뿐,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호흡 속에서 안식하기

걱정이나 욕망,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맨 먼저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마음속으로 말한다. '일단 멈춰! 그리고 숨을 쉬어!' 때로는 만트라처럼 말할 때도 있다. '멈춰. 멈춰. 숨을 쉬어. 숨을 쉬어.' 호흡은 보통의 마음과 참자아를 연결한다. 호흡을 붙잡아서, 마음의 중심을 호흡에 놓으면 가슴 부위가 각성된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싶을 때는 언제나 호흡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심장박동이 네 번 뛰는 동안 한 번 들이쉬고, 여덟 번 뛰는 동안 한 번 내쉰다. 혹은 심장박동이 네 번 뛰는 동안 들이쉬고, 네 번 뛰는 동안 참고, 여덟 번 뛰는 동안 내쉰다. 5분 동안 이렇게 호흡한다. 혹은 한 번의 호흡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허파를 밑에서부터 세 부분으로 나눈다. 숨을 들이쉬며 먼저 밑의 1/3을 채우고, 다음에는 중앙의 1/3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위의 1/3을 채운다. 숨을 내쉬며 위의 1/3을 비우고, 다음에는 중앙의 1/3을 비우고, 그 다음에는 맨 아래의 1/3을 비운다.

가슴에 집중하기

안정되고 침착한 호흡을 몇 차례 해서 정신을 맑게 한 다음, 가슴 한복판의 가슴뼈 안쪽에 내면의 추를 드리우고 의식을 그곳에 모은다. 이완되면서 가슴 공간이 확장된다고 느낀다. 기운이 머리 쪽에 걸려 있으면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계적으로 내놓는다. 의식이 가슴으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직관과 연결된다. 그곳은 영적인 지혜와 각성이 거주하는 센터다. 그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필요한 수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슴에 주의를 기울이면, 걱정하고 공상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지배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 가슴 센터와 만나면 사랑과 영감, 지혜의 원천인 의식, 존재의 중심, 진실한 가슴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감정이 북받칠 때는 그 감정을 감정의 공간에 두고 의식의 힘으로 녹여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라. 또는 가슴 센터에 접근하기 쉬운 직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때로 불안한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만트라로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만트라로 위로한다면 우선 그 만트라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트라가 기운의 장을 진정시킬 때까지 만트라에 각성의 빛을 비춘다. 잠시 가슴의 자리에 앉아 생각과 감정, 내면의 감각이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리며 '깨어 있음'을 수련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그냥 지나가도록 놓을 수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기다릴 수도 있다.

진리에 의지하기

당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련은 자신에게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진리란 '모든 것은 하나'라는 궁극적 진리를 말한다. 당신 딸이 칭얼대거나 까탈을 부리면 당신 안에 있는 참자아, 기운, 의식이 딸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라. 딸의 기분이든 당신의 좌절감이든 모든 것은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잠시나마 이런 바바나를 유지하면 당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찾아온다. 자비심이 올라오고 강렬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는 감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영적 가르침이 어떤 상황이나 당신에게 특별한 공명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학교의 학과장을 맡아서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여성이 있었다. 회의 때만 되면 적대적인 동료들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면 그녀는 '나는 신의 평화로운 마음속에 있다'고 자신에게 되뇌며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멈춰서 자신을 점검하고 중심에서 벗어난 이유를 인식하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보인다. 알아차림, 자아탐구, 수련의 세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법을 배워서 언제나 그곳에 있는 내면의 항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중심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힘과 이해와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근원에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힘과 이해와 사랑이 늘 곁에 있다. 이제 명상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행 스님

현실 세상 무시해도 안 되고 무의 세상 무시해도 안 돼!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질문 한마음요전 수행편에 보면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내면의 소리가 볼썽사나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 몸뚱이를 인형 놀리듯 하지 말고 마음으로 돌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한다면 정신세계에 끄달려 사는 것이니 마치 그 이전 물질세계에 끄달려 사는 것과 같다. 고로 중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내가 어느 산모퉁이를 돌아섰는데 큰 구렁이가 똥그랗게 틀고 있더니 내가 가니깐 별안간에 고개를 반짝 들거든요. 반짝 들더니 얼마 있다가 길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오! 똥그랗게 있었던 건 원이고, 머리를 들었던 건 백(白)이구나. 허허. 그러니 한 일(一) 자로 기다랗게 있으면서 하나로 뭉쳐졌던 것은 이건 일심(一心)에서 모든 게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구나, 모든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떡 돌아서니깐 맑은 물이 있는데 먹고 싶단 말입니다. 먹으려고 딱 가니까 똥이 마려워요. 거기다 똥을 누라는 겁니다. 그 맑은 데다가, 글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먹는 물에다가.

여러분은 만약에 내 속의 은사가, 내 스승이, 마음에서 '저기다 똥을 눠라.' 이랬다면은 노예처럼 거기다 똥을 누겠습니까? 단지 똥을 누라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내면의 스승이 '똥을 누라' 이러면 똥을 누라는 줄로만 알아요. 그 뜻을 새겨 봐라 이겁니다. 그 뒷면을 봐라 이겁니다. 네? 만약에 뜻을 모른 채 그 말 그대로만 알고서 행한다면 그냥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달리 귀신인가요? 그래서 귀신이지. 내가 귀신 짓을 안 하면 귀신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이 오다 가다 떠 먹는 물, 깨끗한 물에 똥을 누라니, 글쎄.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똥끝도 딱 들어갔어, 인제는. 하하하. 똥끝도 딱 들어가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생각을 하니 그게 내 뜻을 보느라고 그랬다는 생각이 났어요. 거기다 정말 시키는 대로 똥을 누느냐, 네 권도(權道)로써 네가 해결을 하느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유(有) 무(無)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무의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무시해도 안 되고, 내 생명을 무시해도 안 되고, 내 몸뚱이를 무시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껄껄 웃고서 똥끝도 들어갔겠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물맛 참 좋구나." 이럭하고선 갔다니까요.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아하! 나를 가르치느라고 시공이 없는 법, 권도법에 의해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이래야지, 이거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저기서 호박 따 오너라' 하면 호박 따 오고, '저기서 참외 따 오너라' 그러면 참외 따오고, '콩 서리 해라' 하면 콩서리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귀신 짓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발로가 되어서도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길잡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길을 걸어갔다 온 사람한테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때는 아무거나 먹고 그런 때니까, 풀을 뜯어먹고 입이 써서 힘들곤 했는데 말입니다, 소나무도 위에 난 가지를 똑똑 딸 수가 있나요? 내 목 따는 거 같아서 말입니다. 밑에 나온 그냥 조그만 가지에게 '나 좀 도와줘!' 그러고 따 가지고선 그걸 먹다 보니깐 떫고 시어서 그냥 입이 하나가 잔뜩 된 거죠. 아, 그래 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옹당물이 있는데, 그게 맑으니까 내 얼굴도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가지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뜨려니까 아, 난데없이 내 스승이 말입니다, 내면의 내 스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네 얼굴이 아니라 네 삼촌 얼굴이다.' 이러거든요. 허허허. 그래서 '삼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보는 순간에 또 금방 화해서 '어이구, 얘! 네 아버지 얼굴인데.' 이러고 또 '아이구, 네 자식 얼굴이야. 아니, 네 며느리 얼굴인데.' 이러고 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때는 그 소리에 그냥 멍멍해진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물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입이 시고 딱 그냥 한 입 된 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잊은 채 그냥 멍멍히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아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그냥 빠르게 돌아간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곤 그냥 탁 놓고는 또 어디쯤 가다 보니까 '만사만생이 다 그냥 있는 게 없고, 산천초목의 천차만별 그 초목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없다' 이거야. 거기에서 그때 그게 생각 난 거야. (손뼉을 한 번 치시며) '아이쿠,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배운 거지마는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어. 나도 없고 아빠도 없고. 왜 없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하! 예전에 말이에요, 야, 이렇게 묘지가 (법상 위에 있는 두 개의 물컵을 가리키시면서) 있는데 "이 묘지는 아비의 묘지고 이거는 자식의 묘지인데 이 자식이 이리로 오면 아비가 되고, 요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이 된다." 이겁니다. 아,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체가 없는 마음이 쉴 사이 없이 화해서 바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스님, 나 이렇게 이렇게 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울고 야단들을 할 때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나오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면 좋아. 왜 그렇게 한만히 뒀어? 뭐, 어쨌어?" 하며 서로 뛸 겁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도 나하고 둘이 아니게 심부름꾼이자 부처자, 법신이자 화신이자, 바로 지신이자 용신이자, 관세음보살이자 지장이자, 칠성이자 독성이자 아, 부처이자 모두가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해 놔도 좀 감응이 됩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게 점수(漸修)라 하면, 다 쌓고 봉오라지 탁 올려놓는 게 돈오(頓悟)예요. 그러니 점수와 돈오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돈오다 점수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모든 걸 지켜보고 관하라 이랬죠? 그러면 "뭐 지킬 게 있느냐?" 이러고 "지키는 놈은 어떤 거냐?" 이래요, 또. 그러는데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맡겨 놓으면, 맡기는 놈도 그놈이요, 지키는 놈도 그놈이다 이겁니다.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응이 되고 실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닥쳐오면 갖다 놓고 또 하다 보면 체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하나 쌓아서 탑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럭하다 보면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성이 무엇인지요

질문 자성(自性) 또는 본성(本性)이라는 말을 도반들끼리 많이 쓰면서도 그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늘도 이렇게 밝았으니 저 태양빛이 지금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밤도 알고 있고, 오늘 태양빛이 쪼여서 날이 밝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저렇게 뜨겁게 비추는구나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혀를 놀려서 뻔드르르하게 하는 말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면서 집어 먹고, 집어 먹으면서 뛰고 이러는 세

☞ A18면으로 계속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무원

여러분 마음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니다

☞ A17면에서 계속

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뜻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물질로서의 과학도 문화도 모든 게 발전이 돼서 우리 머리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요 대낮에 잠시 잠깐 빛이 비치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어저께 밤에 또 주무셨죠. 매사 다 건건이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아시고 계신 그 자체가 자성(自性)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고 하시겠습니까? 불성이 어딨느냐고, 내놔보라고 막 이러겠습니까?

이 점에 뒷받침이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이 행자일 때 삼경(三更)에 들라고 해서 금강경을 설하시니 그 끄트머리에 대답한 육조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여러분이 나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래! "자성은 본래 생멸(生滅)이 없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움죽거림이 없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아마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걸 듣고서 참…, 여러분도 모두 감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자성이 누군 줄을 모르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본래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내는데 말입니다. 손색이 없고 여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잘못되고 잘된 걸 다 놔라" 이랬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는 다 놔라." 잘못되는 것도 나오고 잘되는 것도 나오고, 잘하는 것도 나오고 못하는 것도 나오고, 높은 것도 나오고 얕은 것도 나오고 일체 평등하게 거기에서, 그르고 옳은 게 다 거기서 나오니,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대로 재깍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오는 것도 알고 들이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성이. 그 자성(自性)의 원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싼다 해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자리다 이겁니다, 자성자리가. 일체제불이 같이 하고 있고, 일체제불이 있는 자리에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말을 20년, 30년 이렇게 되풀이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되풀이를 하되 그 되풀이하는 말이 끝이 없군요. 그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뜻!

본래 청정하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고정됨이 없이 "청정한 거는 깨끗한 게 청정한 게 아니라 구정물, 더러운 물,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치는 것이 청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정됨이 없이 한 찰나에 나투면서, 즉 윤회라고 해도 되죠, 반복하면서 제자리걸음 하면서 그저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간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고정됨이 없다.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게 청정이라 한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청정이라고 한다.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다. 밝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 밝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나뿐만 아니라 수차에 거듭거듭 선조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성인도 말을 했고요.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재발을 했어요

질문 선원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 당시 큰스님 친견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해서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공부를 못해 가지고 저의 주인공 자리에서 테스트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넣고는 그냥 들이다지죠? 첫 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주 얘기했듯이 만약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뭐, 그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땐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累)가 되게, 저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함부로 해 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당신의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놓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를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쭙잖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 인 것도 그냥 잘못돼 가지고 씰그러지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은 콧방귀 뀝니다. 하하하….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겠니?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 만하면은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러지 않으면 혼나!' 하하하….

혼낸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없애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면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고요.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닙니다.

고기 먹고 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때때로 큰스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생활의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몇 년간의 한마음 공부가 수행하는 태도에 오히려 방만과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재하자고 말하고 싶어도 왜 걸리느냐는 상투적인 반응이 싫어서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난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스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청정한 거는 깨끗한 게 청정한 게 아니라
구정물, 더러운 물,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치는 것이 청정이다.

답변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공부를 하되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건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허허,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드냐 하면, 소로 살았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찰나 알았으면 훌떡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여물만 먹고 삽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어요. 제자가 생각을 하니 참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그냥 수백 마리를 잡아서 푹 고아 가지고선 그거를 체에다 착 받쳐 가지고 버리고선 '지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리니까 "이게 무슨 물인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곤 물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먹고 병이 완쾌돼서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랍니다. 그래도 그것은 풀뿌리라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아닌 거짓이 효가 된다 이랬죠.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그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을?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구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사)
직전회장 유정(운수사)
회 장 성문(선광사)
수석부회장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만용(성불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진각(흥덕암). 혜산(봉덕사)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원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이상갑 회장 외 회원일동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 (선광사) TEL 051)303-4848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국내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안내

1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인정하고 공부 지원함.
2 한국불교대학 정규시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공함.
3 2년 과정을 공부 마치면 2년 전법사증 수여.
4 전법사증을 받으시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동문 신도로 인정함.
5 국내외 도량의 통학 1시간 이내는 지원 설립 할 수 없음.
6 1년에 한 번 정도 감포도량 무일선원&세계명상센터에서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과 합동 명상 힐링캠프 개최.
7 교재를 구입한 신도만 정식 동문으로, 꼭 교재가 있어야 공부가 가능함.
8 CD 또는 TAPE의 발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단 복재를 절대 금지,2개월 마다 모아서 반납해야함.
9 공부할 장소는 지원의 대표(지원장)가 알아서 하고, 장소 구입 및 자체 회비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권한은 지원장에게 있으며, 한국불교대학 본부는 간섭하지 않음.
10 20명 이상이 되면 분원으로 승격하고, 큰 공간이 만들어지면 도량으로 승격함.

• 문의 : 053-474-8228 (담당 : 대구큰절 종무팀장 수향)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 fl' ⅜ ¯·,
송마나 작가

구화산의 석월초

구화산서 김교각의 육신불 친견
이백 "봉우리가 연꽃 같다" 노래
99개 산봉우리마저 신령스럽다

九華街까지 우리를 따라온 여인
"식사만 자기 집서 해달라" 요청



그림 · 박구원

누추한 집, 실망하고 나가려는데
깨끗한 물 · 수건 가져와 메뉴 권선

여인의 추천 메뉴는 바로 '석월초'
달밤 지장보살 발자국에 피어난 꽃
바람 소슬한 달밤, 그 여인 떠올라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가운데 하나인 구화산(九華山)은 지장보살의 영지(靈地)이다. 옛 이름은 구자산(九子山)이었으나 이백(李白)이 이곳을 유람하며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진 산이 연꽃과 같다"는 시구를 지어 구화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산으로 김교각(金喬覺)의 육신보전(肉身寶殿)이 있다. 신라 33대 성덕왕의 둘째 왕자인 김교각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곳으로 건너와 화성사(化城寺)에서 75년을 수련하고 99세에 결가부좌한 상태로 입적하였으나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 이후 스님은 지장보살로 숭앙되어 육신보전에 그의 육신불(肉身佛)을 모셨으니 구화산 99 봉우리마저 신령스럽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온 배경대(排經臺)에는 스님의 두 발자국이 남아 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경을 읽었으면 관세음보살도 감동하여 그 앞에 몸을 나타냈고, 봉황새와 푸른 용도 머물러 경소리를 들었을까.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해발 600m의 구화가(九華街)에서 숙소를 구하려는 아버지와 나의 뒤를 한 여인이 따라왔다. 우리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왔다. '저러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걸었으나 여전히 따라왔다. 결국 왜 따라오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더니 식사만 자기 집에서 하면 인근의 사찰을 성심껏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면서 바라본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깨끗한 차림의 젊은 여인인지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식당을 버려두고 마당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둘러선 작은 집들 가운데에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냥 나가면 그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약간의 돈을 놓아두고 일어서려는데 여인이 세수 대야에 물을 떠오고 비누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우리가 씻기를 끝내자 그녀는 따끈한 차를 하얀 수건으로 덮어진 컵에 따르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조용히 살폈다. 이윽고 우리가 권하고 싶은 음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메뉴판을 가리켰다.

'석월초(石月草)!'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동충하초(冬蟲夏草)는 들어보았지만 '돌달풀'이란 처음 듣는 이름이다. 석월초는 깊은 산속의 바위틈에서 자란다. 그것도 지장보살이 밟고 다닌 발자국에서 하얀 달밤에만 자란다고 한다. 밟히고 눌려도 환하게 미소 짓는다는 석월초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달 밝고 바람 소슬하게 부는 밤이면, 석월초 그 여인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社說

모바일 포교 앞서 교육부터

포교원이 신행혁신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뉴미디어 포교에 칼을 뽑았다. 바로 포교콘텐츠를 모바일로 집대성한 가칭 '붓다로살자' 앱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신행혁신운동의 핵심인 일일수행점검 기능과 기존 포교연구자료 열람 등을 앱 하나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앱에서는 수행 진척에 따라 연꽃잎이 커지고, 나무가 자라는 등 자신의 수행정도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점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포교원이 붓다로살자 앱에 앞서 개발한 어린이 · 중년 등 연령별 마음거울108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각각 2000여 건에 불과했다. 그 내면을 보면 정작 마음거울108앱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불자들이 스마트폰 활용 자체에 미숙한 원인이 있다. 아무리 좋은 앱이라도 주 이용대상이 활용법을 모르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사찰 관계자는 60대 이상 불자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털어놓았다. 눈치가 보여 자식들에게 일일이 묻기 어려워 사찰 종무원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묻는다고도 했다. 고연령층 분포가 많은 불교 특성상 스마트폰 활용이 미숙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불교계에서 진행되야 함에도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전무했다. 포교원이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건 수행을 점검하고, 기도와 교육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 포교원이 전법중심도량을 시작으로 고연령 불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붓다로살자' 앱을 통한 모바일 포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16순례길, 치유의 여정되길

인천 연안부두부터 팽목항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걷는 '4.16순례길'이 첫 발을 내딛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순례단은 7월 6일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총 809km 순례길을 걸어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발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순례 동안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 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한편, 목포신항에서 기도모임을 여는 등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이번 순례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순수하게 전국서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승 스님도 "따가운 햇살아래 고된 길이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순례길이 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환한 길이 넓게 열리길 기원한다"고 순례단의 가는 길을 축원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300여 명의 국민들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세월호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전 정부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 시민들이 인천서 팽목항까지 도보 순례를 하는 이유는 상생과 치유를 위함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순례단의 여정이 상생과 화해, 치유의 여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



지안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도자라는 말은 영어의 리더(leader)이다. 민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덕망과 남보다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형 인물에 해당한다. 이른바 전문화 시대의 이념적 파벌주위에 빠지면 그 시대 사회를 위한 전체적인 통찰력이 결핍되기가 일쑤다.

보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소아(小我)를 넘어선 대아(大我)의 정신으로 인류의 보편의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이다.

부처님은 대중을 이끄는 방편으로 네 가지 덕목(德目)을 일러주셨다. '첫째 사람들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을 잘 파악하여 은혜를 베풀고(布施), 둘째 합당하고 사리에 맞으며 부드럽고 고운 말을 쓰며(愛語), 셋째 스스로의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利行), 넷째 사람들의 근성(根性)을 헤아려 방편을 달리 행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同事).' 곧 사섭법(四攝法)은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섭법으로 대중을 이끈다면, 어떤 대중도 이끌지 못할 대중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중아함경〉

지도자의 말 한 마디는 솔직담백하여 민중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바르게 정직하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닌가.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큰 뜻을 품고 민중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민중을 분파적 갈래로 찢어 놓아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전체를 조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총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폭넓은 관찰을 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지적 선택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전체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되어 다양한 민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집단 내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른바 연기법칙에 의해서 서로가 존재하며 변증법적인 논리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침잠하기 이전에 화쟁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를 통합하는 중재자가 되려면 나 자신이 극단적 변견(邊見)에 벗어나야 한다. 중도(中道)로써 양변(兩邊)을 소통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탕평책이 나올 수도 있다.

목하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중도적 개혁'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말들이 이미 진부해졌고 식상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중도통합논리가 적용되어 양비론(兩非論) 아닌 새로운 정치적 모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한국-부탄 30 주년 기념
부탄직항 전세기 일정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부처님과 가족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부처님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855-0108



〈가족편〉

BTN 어플과 BTN 불교라디오 올림 어플은 스마트폰(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U+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내가 지금 '공양주'로 사는 이유… 인재불사



아미사 공양간은 지장재일 행사로 인해 분주했지만, 김순이 보살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하다. 후덕한 인상처럼 학생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은 넓고 넓었다.

그대는 자비보살

나무심 김순이 보살
(나무심장학회 이사장)



올해 4월 13일 나무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장기기증하며 기부 발심

30년 전 기증약정 후 기도 시작

"참 의사, 미래부처님 나오도록"

전국사찰 다니며 공양주 봉사

수락산 영원암서 1000일 기도

중생 위한 회향의 삶

공양주로 모은 아파트 기부

학교 측 월세수입으로 장학

동국대 선센터 건립에도 참여

의예과에 시신 기증도 결정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한 스님도 혹은 재산이 많은 부자도 아니다. 사찰에서 공양을 짓고 청소를 하는, 사찰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공양주' 보살이다.

이 공양주 보살은 평생동안 모은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몸도 동국대 의예과에 해부실습용으로 사후 기증을 약속했다.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이였다.

이 공양주 보살은 공양주로 살게 된 이유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기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삶의 마지막을 멋지게 회향하는 것이 목표라는 김순이(64) 나무심 보살의 얼굴에는 행복만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미래 구원할 '미륵불'

김순이 보살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돌아온 답변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조금의 망설임없이 김순이 보살은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차례 부탁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김순이 보살을 알게 된 인연이었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한 학생 이야기를 꺼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보살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소개해 주셨어요."

수화기 건너편에선 "아~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김순이 보살은 웃음소리 섞인 순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소개했다면 해야죠. 미륵불이 소개했는데 안 하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선 안 해도 학생이 원하면 해야죠. 미륵불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원으로 살고 있는데…."

김순이 보살은 학생들을 미륵불이라고 칭했다.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에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김순이 보살은 부처님 마음을 전해 불심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있었다. 매일 학생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순이 보살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못 낼 것이 없다고 했다.

이윽고 5월 13일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뷰 장소인 대구 아미사는 지장재일 행사로 인해 분주했다. 공양간에서 일하는 김순이 보살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다. 김순이 보살은 공양주 역할이 곧 기도이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 도구라고 했다.

"곡식 낱알 하나가 사람 몸에 들어오려면 천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는 불자님들이 기도하며 정성껏 마련한 시줏돈으로 준비합니다. 그들의 기도이며 마음인데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많은 참배객들이 떠나고, 남겨진 그릇을 설거지하고 정리정돈을 하니 이미 해가 중천을 훌쩍 지나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쉬지 않고 일하던 김 보살은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공양간에서 고무장갑을 벗자 지난 세월을 보여주듯 거친 손가락 마디가 눈에 들어왔다. 공양간에서의 어려움이 그 손 하나에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에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장학금은 어떻게 줄 수 있었느냐고 묻자 "돈이 하나? 마음이 하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보살은 돈이 많은 부자라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기도가 이끈 회향의 삶

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김순이 보살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기부했다는 것이었다. 거제도에 위치한 아파트는 목이 좋아 현재 시세가 3억원이다.

"거제도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공양주를 하며 모은 돈으로 매입했던 건데 동국대에 기부하려니 융자금이 잡혀 있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땅이 237평이 있어서 그걸 팔아 먼저 아파트 융자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동국대에 기부했죠. 학교 측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월세를 줬고,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산인 아파트를 기부한 김순이 보살은 대구 아미사 내 공양주 처소에 기거하고 있었다. 3평 남짓 방에는 밤색 낡은 옷장 하나와 긴 옷걸이가 전부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방 안에 있던 라면 박스 속에서 주섬주섬 보리수 나무를 꺼내 보여줬다. 50cm 높이의 보리수 나무에는 부처님이 수행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장학생이 스리랑카에서 직접 골랐고, 동국대가 감사의 의미로 선물한 것"이라며 마치 학생들을 본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3억원의 아파트보다 학생들의 마음이 더 커 보였다.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 아이들 같아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고 싶어요.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따로 연락하진 않아요. 조용히 몰래 초콜렛을 두고 오고 빵을 보내기도 합니다."

김순이 보살이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 도반의 인연으로 장기기증을 하게 된 것이 그 출발이었다. 30여년 전 김순이 보살이 서울 수락산 영원암에서 기도할 무렵이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도반이 장기기증을 추천했다. 처음에는 장기만을 기증하려 했지만, 그 취지를 듣자 마음이 움직였고, 시신기증까지 약정했다.

"죽고 난 다음 제 몸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예과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더군요. 사후 저의 존재에 대한 많은 생각이 떠올랐고, 많은 학생들이 제 몸으로 공부를 하며 마음이 불편할까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참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부처님의 정치수업〉 윤성식 교수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부처님이 계산하며 살진 않았잖아요?”


동국대가 선물한 보리수나무를 소개하는 김순이 보살



고무장갑을 벗자 지난 세월을 보여주듯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가 눈에 들어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이 보살은?

1953년 서울에서 6남매 가운데 2녀로 태어났다. 수락산 영원암에서 기도 수행 정진하고 공양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희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1년 김순이 보살의 법명인 ‘나무심’을 본 따 나무심장학회를 설립했다. 매 학기 불교학과, 한의학과, 의예과 학생 1명씩 연간 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순이 보살은 장학금 뿐 아니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예과에 해부실습용 시신 기증 약정도 했다.


아미사서 기도하는 김순이 보살

‘나무심 김순이 보살’ B1면에서 계속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사, 미래 부처님이 나오도록 말이죠. 계속 기도를 하다보니 만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은 삶을 회향의 삶으로 살자고 결심하게 됐죠.”

그녀는 그때부터 공양주로서의 삶을 살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1년부터 나무심 김순이 보살의 법명을 딴 나무심 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불교학과, 한의학과, 의예과 학생 각 2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남을 위해 치운 나뭇가지, 법명이 되다

그렇다면 ‘나무심’이란 법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귀의하다’의 의미를 지닌 나무심이냐고 묻자 김 보살은 웃으며 말 그대로 산에 혹은 들에 있는 나무(木)라고 했다.

“절에서 처음 공양주를 할 때 받은 법명입니다. 30년 전 공양주는 무보시로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으면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1000일 기도를 겸해 공양주 활동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김순이 보살은 수락산 영원암에 매일 같이 갔다. 걸어서 한시간 거리지만, 산세가 험해 매일 암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손에는 공양을 짓기 위한 재료가 들려있었다. 또 영원암에서는 불을 지피는 것조차 어려웠다.

“1000기도의 원을 세우고 산을 오르는데 하루는 내려 오던 아이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저 나뭇가지를 치웠으면 저 사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텐데…’라고요. 길에 넘어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암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 공양을 지었습니다. 이를 암자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저를 나무보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별명이 그대로 법명이 됐습니다.”

기도와 함께하는 이타행

타인 위한 마음에 길 위 나뭇가지
암자까지 가지고 와 ‘나무심’ 법명
“먼저 치웠으면 넘어지는 이 없어”
노후 걱정 시선에 “희망심기 중요”

김순이 보살은 낮에는 영원암에서 공양주로 지내고, 밤이면 불자택시기사들의 법당에서 기도를 했다.

“부처님 앞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불퇴전을 맹세하고 또 다른 나무 한 가지를 붙잡고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마지막 나무 한 가지를 붙잡고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도록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평생을 법당에서 보낸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을까. 김순이 보살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000일 기도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과정에서의 괴로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가정 문제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 견디기 힘들었죠. 아이들이 자라 저에게 함께 지내자고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1000일 기도를 마친 김순이 보살은 전국사찰을 다니며 공양주 일을 했다. 어느 사찰은 공양주 보시금이 3개월간 나오지 않았다. 100만원도 안 되는 보시금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보시금을 다시 공양물을 사는데 쓰기도 했다.

2004년 김순이 보살은 원주 상지대 앞에서 분식집을 차렸다. 하지만 다시 마음껏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가게를 정리하고 2010년까지 전국을 다니며 기도를 시작했다. 양산 통도사, 경산 팔공산 갓바위, 철원 도피안사, 하동 쌍계사 등에서 기도정진을 이어갔다. 인도에 가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기도 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며 지낼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더라구요. 기도를 하다보니 다시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자들은 ‘이 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쳐 나와 중생들 모두가 다음 생에 극락국에 태어나 다함께 무량수불을 친견하고 불도를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고 법회에서 회향게를 외우잖아요. 이 서원이 제 서원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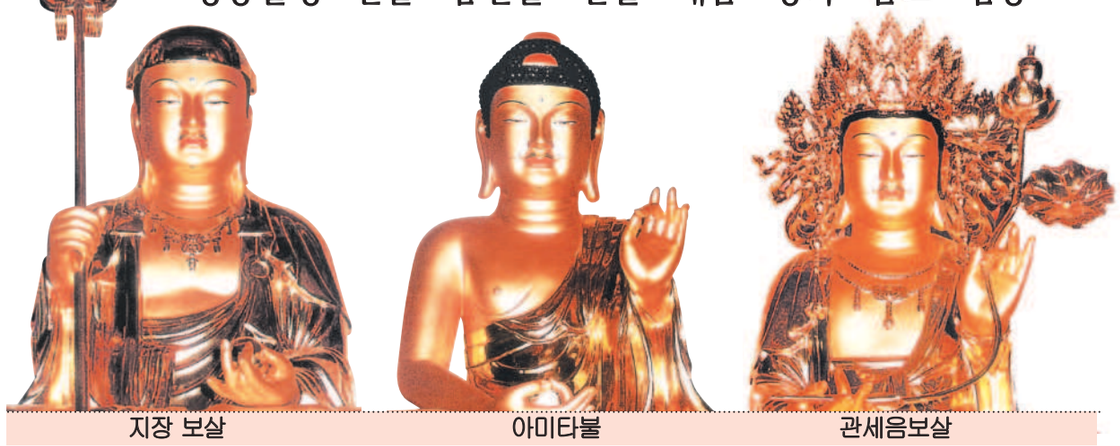
마음 밭에 심은 희망 씨앗

4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는 나무심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김순이 보살은 장학증서를 전달한 뒤 학생들과 점심공양을 함께 했다. 식사 후 그녀는 학생들에게 목욕도구 세트를 선물했다.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산만해지면 씻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모든 것에 길이 보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성불임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학생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일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30년 전 수락산 영원암을 오르며 갖고 갔던 나뭇가지 수는 3개였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한 학기마다 그녀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학생도 3명이다. 나무를 잡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도 했다. 지금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활동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김순이 보살은 말했다.

“회향이 계산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계산하시며 세상을 살지 않으셨어요. 멋지게 인생 회향하고 가세요. 미래세대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스승 살려낸 석남사 스님들 절수행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⑩ 석남사에 다녀와서



그림 · 박구원

부처님오신날 며칠 전에 석남사에 다녀왔다. 석남사는 내가 절수행에 대한 글을 쓰는 데 계기가 되어준 절로 마치 친정처럼 푸근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석남사와의 인연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후학들을 이끌며, 비구니승가의 출가정신을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석남사가 종립 비구니선원이 되는 초석을 세운 인홍 스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부터다.

10여 년 전, 인홍 스님의 제자 스님들을 뵙기 위해 처음 석남사를 방문했을 때는 지금처럼 초록빛이 싱그러운 5월이었다. 인홍 스님의 제자 스님들은 존경해 마지않는 스승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은사와 함께 했던 세월을 증언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며칠동안 아름다운 이야기에 흠뻑 빠져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때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 속에 간직돼 있어서인지 석남사에 갈 때마다 마치 내가 살았던 곳처럼 친근함이 느껴진다. 특히 그때 들은 절수행에 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108배 수행에 대해 글을 쓰게 되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석남사에 저녁 나절에 도착하니 선원장이신 법희 스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스님은 1950년대 후반, 스승인 인홍 스님을 따라 석남사에 들어오셔서 어느덧 여든여덟의 노스님이 되셨다. 처음 뵈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화신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 스님은 성철 스님께 화두를 받기 위해 수만 배의 절을 했다. 당시 성철 스님은 화두를 받으러 온 스님들에게 반드시 최소 3만 배를 시켰다고 한다. 방석을 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법당 마룻바닥에서 매일 절을 한 탓에 무릎이 까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하지만 신심이 북받쳐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열흘 동안 매일 3천배씩 3만배를 하고 성철 스님께 화두를 받고 돌아올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고 하시니, 그렇듯 빛나는 초발심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날 스승의 뒤를 이어 석남사를 이끌고 계신 것이다.

저녁예불을 드리러 가는 길에 도문 스님을 뵈었다. 가사장삼을 단정히 수하고 천천히 법당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에 위의가 서려 있었다. 스님 역시 인홍 스님의 제자로 석남사에서 평생을 정진한 분이다. 여든 가까이 되셨을 텐데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예불을 드리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예불이 끝난 뒤 108배를 하고 잠시 앉아 있으려니, 법당에 깃든 석남사 스님들의 절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인홍 스님이 오십대 후반의 나이에 심한 췌장염으로 생사를 헤맬 때, 온 대중스님들이 나서서 네 사람씩 조를 짜 24시간 절을 하며 스승을 살려냈다. 108배에 대한 글을 쓰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 일화는 나중에 '왜 21일 기도를 하는가'는 주제로 자세히 쓸 생각이다. 혹시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분이 있다면 석남사 법당을 찾아 아직도 그 절절했던 기가 서려있는 법당에서 절을 해보시기 바란다.

법당을 나오다 前 주지 도수 스님의 전화를 받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 공영방송에서 3천배와 만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한다고 하니 함께 보자는 연락이었다. 절수행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데다 이번 석남사를 방문한 목적도 그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계신 스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뜻밖에 횡재를 한 기분으로 스님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스님도 초발심시절에 절을 하며 신심을 세웠다고 하며 관심을 보이셨다.

절수행의 고수들이 모이는 해인사 백련암을 무대로 절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시누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시작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깊이 공감되었다.

그렇다. 살면서 예기치 않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덮치곤 하던가. 그럴 때 108배를 하면 깊은 안정감을 얻게 되어 불안감이 사라진다. 남을 위한 기도, 그것도 때때로 1만배를 하면서 철저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녀야말로 진정한 보살 같아 보였다.

몸이 몹시 성치 않은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 시설에 맡겨 키울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가 108배를 통해 안심을 얻은 이야기도 감동적이었다.

자식을 자기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생살을 찢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다.

절을 하면서 무한히 참회하고 자식이 살아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을 터인데, 108배는 그렇게 겸허하게 인연에 수순하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다음날, 새벽예불을 마치고 3백배를 한 뒤 심검당에 올라갔다. 그곳은 40여 년 전에 인홍 스님이 선후배 스님들과 한국비구니계 최초로 3년 결사를 한 곳이다. 스무 분의 스님들이 3년 동안 절 문밖을 나가지 않고 지혜의 검을 찾기 위해 생사를 걸고 정진했던 곳이다. 당시 대중을 이끌며 정진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홍 스님의 작은 방 벽에 붙여놓았다는 글이 생각났다.

인홍 스님 일대기 쓰며
석남사 대중과 선연 쌓아
24시간 조편성해 절수행
새로운 발심의 원동력

"누워 편안할 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받을 자신을 생각하라."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도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을 철저히 경계하며 정진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스님의 처절한 노력을 생각하면 심검당에 올 때마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3년 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철저한 수행으로 인해 절 전체에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았는지 결사에 참석하지 못한 스님들 또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듯 화두만 마음에 있었던 스님들이 새벽예불 때마다 한 수행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3백배가 그것이다. 일체 중생을 대신해 참회하고, 정진하는 데 장애 없기를 기도하며 절을 한 것이다. 석남사 법당에서 옥류동 골짜기를 따라 10여 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단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심검당엔 지금도 안거철이 되면 선객 스님들이 모여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석남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면을 빌려 절수행으로 심각한 병고를 이겨내고 올곧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인홍 스님의 손상좌 현각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현각 스님은 30대 중반에 늑막결핵을 앓고 있어서 석남사 3년 결사에 동참하지 못했다. 결핵을 너무 오래 방치해 두어서 균이 늑막으로 옮겨가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목숨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니 폐 한쪽에 물이 차서 사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실에 누워 있자니,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났다. 죽어도 절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석남사로 다시 들어갔다.

수술을 마다하고 병원에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석남사 구석진 뒷방에 있으면서 스님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견뎠다. 그러다 공부하는 다른 스님에게 미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은사 스님이 기도하고 있는 해인사로 갔다. 은사 스님 곁에 있다가 죽을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선배 스님 한 분이 기왕에 죽을 거라면 성철 스님에게 가서 인사나 드리라고 했다.

선배 스님 세 사람이 아파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스님을 데리고 성철 스님에게로 갔다. 고열로 인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정신을 거의 잃을 지경이어서 가다가 드러눕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몇 시간을 걸려 파계사 성전암에 도착했다. 성철 스님이 다짜고짜 살고 싶으면 3000배를 하라는 명을 내렸다. 서너 번만 절을 하면 그대로 쓰러져 죽을 것처럼 몸이 아팠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밥을 얻어 먹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그냥 죽을 수야 없지 않은가. 부처님 멱살이라도 한 번 잡아보고 죽자. 절을 죽더라도 한 번 해보자."

첫 날 아침 8시, 해인사 극락전에 들어가 은사 스님을 따라 절을 했다. 절을 하는데 천장이 땅이 되고 땅이 다시 천장이 되는 것처럼 어지러워 정신이 혼미했다. 너무 아파서 제발 죽었으면 하고 엎드리면 고개가 들리고, 다시 죽어야지 하고 엎드리면 또 고개가 들려졌다. 그렇게 기적처럼 첫 날 천 배를 했다. 그러고 나자 못난 자신에게 속아서 수십 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분한 마음이 들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3000배를 했다.

그러는 동안 힘이 없어서 산을 하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웠던 엉덩이가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처럼 가뿐하게 올라갔다. 먹던 약을 모두 끊고 7일 절을 하고 나서 7일 쉬면서 49일 동안 절을 하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00배를 했다. 그동안 무릎은 다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정신은 명료해졌다. 그렇게 일 년 정도 절을 하고 목숨을 구하게 됐다. 현각 스님이 한 말씀을 전한다.

"바늘 끝 만한 일도 인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절 기도를 해서 나은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죄를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108배 100일 기도를 끝내고 현각 스님처럼 건강해지기를 기도한다. 스님은 여든 살이 넘으신 지금도 만나는 이들에게 스님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전하며 절수행을 권하고 계신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5.17~20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佛法에 현실정치 대입하면 이상국가 드러나

부처님의 정치수업

윤성식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상적 사회와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부처님 법(法)으로 만든 세상, 또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정치는 어떤 그림일까?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를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 책 〈부처님의 정치 수업〉은 이런 고민서 출발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정치에 대입해 적용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국가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양극단을 버리고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중도(中道)국가다. 법치를 근간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정법(正法)국가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서 끊임없이 최적의 정책을 모색한 혁신국가의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2015년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내며 경제계와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킨 고려대 윤성식 교수〈사진〉다. 그의 전공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미국 오하이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일리노이대 회계학 석사, UC버클리대 경영학 박사, 동국대 불교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경력으로는 텍사스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거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 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을 현대의 삶에 적용했다면, 〈부처님의 정치 수업〉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정치 문제를 불교의 중도사상과 연기적 세계관에 대입해 해법을 제시한다. 이 두 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신선함과 정직함이다. 그동안 불교가 회피하고 껄끄럽게 여긴 돈과 정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불교계에서는 세속적이라는 편견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주제이기에 언급을 꺼렸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학 박사로서, 경제·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치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아울러서 불교적 해법을 도출해낼 적임자다. 윤성식 교수의 언어는 전문적이거나 어렵지 않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 언어다.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 직설의 언어다. 업(業), 공(空), 연기(緣起), 중도(中道) 등의 불교사상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 녹여낸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론적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치혁신과 재벌개혁을 비롯해, 경제, 복지, 외교, 안보, 행정, 민생, 의료, 교육, 환경, 노동 등 정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총 망라돼 있다.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다보면 우리 정치가 무엇이 잘못되고 부족한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 정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보면 세상을 인식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며 정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



양극단 버린 중도 국가
법치 근간한 정법 국가
생존권 보장한 복지 국가

〈숫타니파타〉서 "살아 있는 존재는 다 행복하라"고 했다. 행복은 나와 세상의 변화로 가능한 꿈이며, 세상을 가장 쉽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정치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증서 벗어나 정치의 긍정적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자각이다. 이 책은 불교와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와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썼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정치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며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인지, 부처님 말씀에 대입해 방법론적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의 융합으로 이뤄진 제 4차 산업혁명은 지진해일처럼 우리를 덮쳐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을 것이다. 혁명적 변화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이뤄온 눈부신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불교는 계급을 부정하고 여성 출가를 허용한 개혁종교이며, 세계의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전통과 결합해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유연성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세계서 다양성과 유연성이야말로 생존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 다양성과 유연성이 담보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걱정보다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제기된 정책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경전에 나타난 이상국가는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수준이다. 현대의 북유럽국가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심지어 〈증일아함경〉에는 부처님이 왕에게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라고 설한다. 배우자의 주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생존의 기본권이라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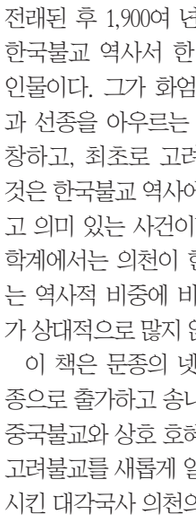
현실정치에 제시한 불교의 8가지 해법

1. **유연성**=불교는 이분법과 흑백논리를 배격하며 집착을 경계하니, 변화에 유연해 진다.
2. **다양성**=불교는 정답이 있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 오직 임시적인 결과만이 존재한다고 믿기에 다양성을 지향한다.
3. **개방성**=불교는 각 지역의 전통신앙마저 흡수할 정도로 포용적이며, 타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다. 따라서 개방성은 포용성을 포함한다.
4. **합리성**=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주장이라고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이치에 맞으면 수용하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法)에 의존하라는 말씀 또한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5. **합법성**=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는 정법국가이므로 모든 정책은 법치행정에 기초해야 한다. 부처님 또한 나라의 법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6. **민주성**=불교 교단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으며 반드시 투표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집단적으로 모여 잘못을 반성하고 대화하는 정신으로 교단이 운영됐다. 교단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1인 1표를 행사했기에 민주성은 평등성을 포함한다.
7. **혁신성**='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불교이기에,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교적일 수가 없다.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할 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수정 보완했다.
8. **자비성**=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불교경전에 나타난 정부는 자비로운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은 약자의 생존기본권을 보장하는 자비로운 정책이다.

의천의 불교 사상 당시 맥락으로 탐구

대각국사 의천연구

무원, 진관 공저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고려는 장구한 한국불교 역사서 또는 불교국가라 칭할 만큼 불교가 융성했다. 이 책은 고려 문종부터 숙종까지 5대에 이르는 왕의 기록을 중심으로 당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해동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을 고찰했다. 원효의 사상을 이어받아 불교 융합을 이끌었으며, 고려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정초하고 제시한 대각국사 의천의 삶과 사상을 당시의 역사적, 사상적 맥락으로 탐구한 것이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장려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 계층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가 됐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활약한 승려 중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가야를 통해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후 1,900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한국불교 역사서 한 봉우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가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과 선종을 아우르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최초로 고려속장경을 간행한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의천이 한국불교서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에 비해 구체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 책은 문종의 넷째 왕자로서 화엄종으로 출가하고 송나라에 구법 유학해 중국불교와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고려불교를 새롭게 일신하고 크게 융성시킨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와 불교수행 전 과정을 탐구하고, 이와 연관해 고려 문종 시대의 불교사 및 불교사상을 역사적 전개를 따라가면서 탐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의천의 사상에 대해 논하기보다, 그가 편집한 중국과 한국의 불교 관계 저술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3권에 대한 분류 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의천의 불교사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또는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천의 출가 정신과 불교 학문에 대한 열정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천의 출가 정신관과 실천관에 대해 고찰하고, 출가 이후 송나라 구법 활동을 통해서 수집했던 장소(章疏)에 관해 살피고, 다음으로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3권의 역사성을 새롭게 고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들을 제시한다.

첫째, 의천은 출가 이후 20여 년 간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대한 장소를 수집했는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특히 의천이 장소를 수집하려던 결정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찰했다.

둘째, 의천의 사상이 과연 화엄종인가 천태종인가 하는 점을 고찰했다. 이는 의천이 화엄종으로 출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태종에 대한 관심을 가

대각국사 의천 활동 고찰
원효사상 이어 융합 이끌어
고려불교의 새 지평 열어

진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의천의 사상에 더욱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천은 균여의 저서 목록을 장소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넷째, 의천이 신라의 원효에 대한 장소의 목록을 작성하면서도 일본 승려들의 저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관점서 문제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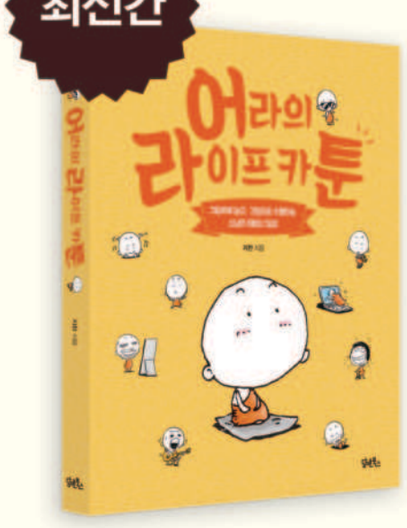
한편, 의천은 원효를 지극히 숭상했는데, 사실 의천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원효의 존재는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원효를 받들고 원효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한 노력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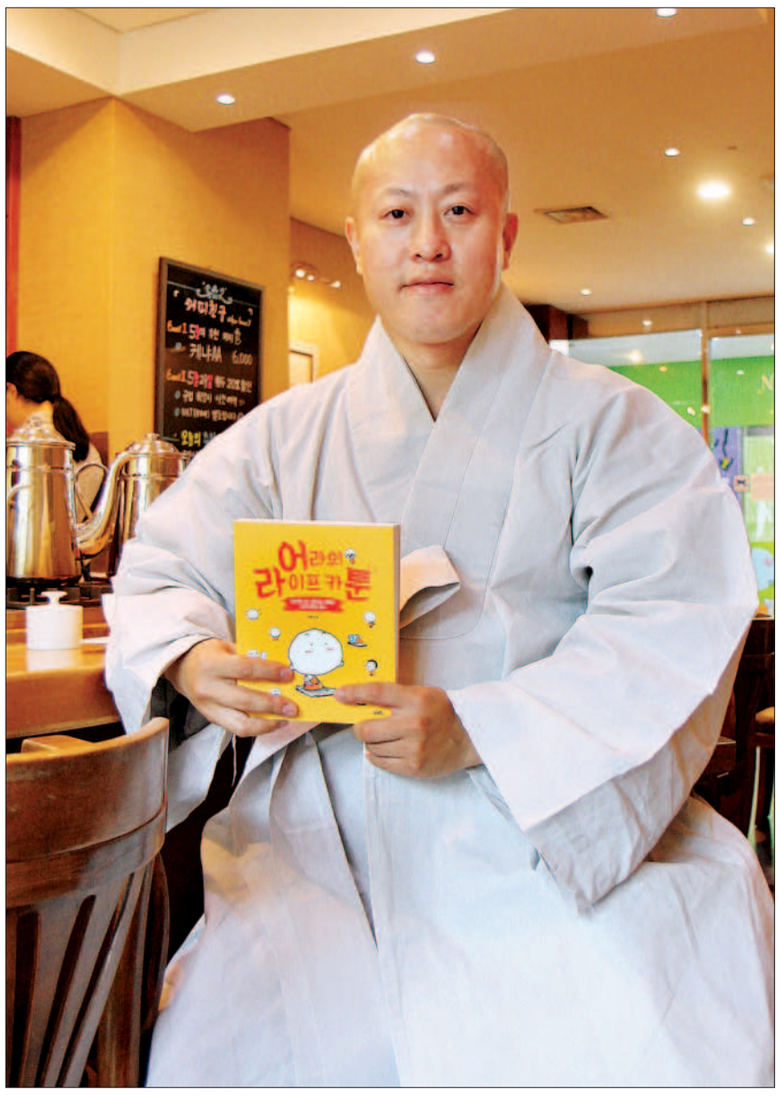
고려불교의 초기와 중기에 걸쳐 불교 전적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통불교적인 해동 천태종을 창종함으로써 고려불교를 쇄신한, 한국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대각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 이 책이, 선과 교를 아우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풍 형성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월간 해인」 편집장이자 시 짓는 수행자
도정 스님 산문집
사랑하는 벗에게 보내는 마음 편지
최신간

시인의 눈과 수행자의 가슴으로 본
자연과 사람, 세상사에 대한 통찰이 담긴 117편의 편지글
도정 스님이 "심중 깊은 곳에서 길어 낸 사랑과 위로"의 말
사랑하는 벗에게
도정 글, 김화정 그림 | 240쪽(올컬러) | 14,500원

그림으로 놀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스님의 재미난 일상
크하하하, 웃음 뒤 찾아오는 지혜와 감동
최신간

만화 그리는 스님이 나타났다!
아이폰 유저로 전기 자전거로 세상을 누비고,
팟캐스트를 하는 어라 스님!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스님의 마음, 세상, 사람 이야기.
어라의 라이프 카툰
지찬 지음 | 288쪽(올컬러) | 13,000원
전화 (02)765-1251 담앤북스



두 번째 책 〈어라의 라이프 카툰〉을 펴낸 카투니스트 지찬 스님을 5월 16일 조계사 인근에서 만나 발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자탄승' 어라 스님의 일상 수행기 엿보기

〈자전거 탄 승려〉

카투니스트 지찬 스님 〈어라의 라이프 카툰〉 발간

'만화 그리는 스님' 지찬 스님이 두 번째 책 〈어라의 라이프 카툰〉으로 돌아왔다. 사실 지찬 스님이란 법명보단 '어라 스님'이 더 익숙하다. 스님의 별칭이자 스님이 그리는 만화 캐릭터의 이름이 '어라'다. 2등신과 가분수 머리 등 귀여운 생김새로 큰 인기를 끌었던 동자승 어라 스님은 이번 책에서는 조금 진화(?)한 형태의 5등신으로 등장하기도, 또 인형으로 제작돼 사진 속에 담기기도 했다. 자전거도 탔다. 일명 '자탄승(자전거를 탄 승려)'이다. 5월 1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지찬 스님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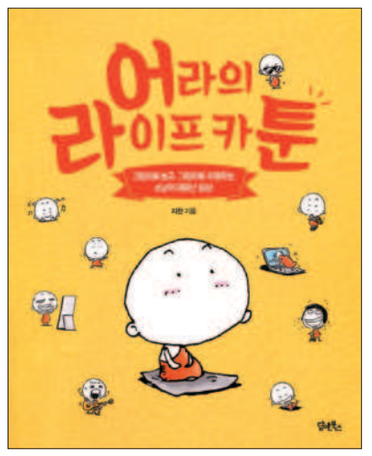
"자전거를 타면 가는 동안의 풍경, 예기치 못한 상황, 만나는 사람 등 모든 것들이 만화의 새로운 소재가 돼요. 걷는 것보단 빠르고 대중교통보단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단 장점이 있죠. 나중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를 누비며 '만화 여행기'를 엮고 싶단 생각도 있어요."

스님의 만화는 곧 스님의 일상이다. '어라'란 캐릭터로 스님 본인의 소소한 얘기를 전한다. 인기 드라마나 예능을 즐기는 우리네 일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사유하는 법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님의 시선에 따라 만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책 제목도 원래 〈어라, 그렇게 봄〉으로 짓고 싶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시선자체에 머물지 않고 사유와 분별판단이 이뤄지면 더 아름다운 불교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 보다 보면 '봄'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봄(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으면 시선이 머무는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어라'란 캐릭터 이름이 탄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어라'는 불교에서 대상을 그냥 보지 않고 관(觀)한다는 의미의 '이뭣고'와 같은 의미다. 지찬 스님은 "내 말버릇 중 하나가 '어라?'다. 그 물음은 세상을 궁금해 하며 사유하는 과정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면서 "'이뭣고'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라'란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님은 만화를 그리면서도 일상에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다. 만화를 그리는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만화는 버릴 수 있어도 수행은 버릴 수 없다는 스님만의 고집이 있다. 지찬 스님은 수행이 밑받침돼야 만화도 불교를 알리는 방편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라의 라이프 카툰〉 담앤북스 발간.

〈어라, 그런대로…〉 후 2번째 발간
2등신 어라, 5등신으로 표현하기도
총 4부… 여행지 · 혼자노는법 등
5월 26 · 27일 부산서 북콘서트

그렇다면 지찬 스님의 앞으로 꿈은 무엇일까? 카투니스트로서 스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말할 때 지찬 스님은 꿈 많은 사춘기 소년처럼 눈빛이 반짝거린다. '1급 비밀'이라며 털어놓은 스님의 다음 책 주제는 바로 '풍수'다.

"풍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풍수방향을 알려주고 그 과정을 만화로 그리는 거예요. 생각 만해도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새로 배우는 것들은 새로운 만화 소재가 되니 제가 배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웃음)."

어라 스님은 오는 5월 26일 오전 11시 부산 대광명사에서 발간 기념 사인회 및 법회, 27일 오후 3시 부산 담앤북스 1층 카페에서 사인회 및 북콘서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어라의 라이프 카툰〉은 4부 구성으로 이뤄진다. 1부는 어라가 혼자 노는 법, 2부는 어라가 다닌 여행지, 3부는 어라가 만난 사람 · 고양이 · 어린아이에 대한 에피소드, 4부는 깨달음과 명상에 대한 주제다. 담앤북스 288쪽 13,000원.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로 지정된 국보 · 보물 50건 일반에 공개

2014~2016년 보물 · 국보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특별전

불교미술의 정수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보물 제1903호) 등 2014~2016년 보물 및 국보로 지정된 50건 문화재가 한 자리서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2014~2016년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를 7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121건의 국보와 보물 중 50건의 문화유산이 대중에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신앙 △기록 △삶 총 3가지 주제로 열린다.

1부 '신앙, 간절히 바라다'는 선조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문화재들을 소개해 개인적 행복과 사회 및 국가의 안녕을 바랐던 염원을 읽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보물 제1823호 〈농경문청동기〉와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이 소개된다.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2부 '기록, 역사에 새기다'는 선인들이 기억을 남기는 중요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 이와 관련한 문화재를 다수 소개한다. 보물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 궤,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 등 직접 만나볼 수 있다.

3부 '삶, 예술로 남다'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삼국시대 장신구, 고려청자와 금속 공예품,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등이 전시된다. 보물 제1921호 양산금조총 출토 유물일괄과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보물 제1430-2호 봉수당진찬도 등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유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작품에 내재된 역사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면서 "작품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다보면 어느새 선인들의 마음이 곧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세대를 뛰어넘는 수묵의 향연

탑골미술관 초대전 '경계를 넘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각기 다른 수묵, 서예 작품으로 한 자리에서 만난다.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제5회 탑골미술관 기획초대전 '경계를 넘어'를 5월 18일~6월 16일 연다. 정광희, 박한샘 현대 수묵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기획초대전에선 두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서예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정광희 작가는 수묵추상 작품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조형 실험을 통해 수묵추상의 현대적 변용을 다채롭게 드러낸다. 또 박한샘 작가는 지 · 필 · 묵에 대한 철저하고 진지한 실험으로 실경산수화를 그리면서도 전통과는 다른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 돋보인다.

전시 기간 중엔 두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25일 오전 10시 30분엔 정광희 작가, 6월 8일 오전 10시엔 박한샘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관람객들이 수묵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월 30~31일 오후 1시 30분 '부채 그림 그리기', 5월 29일~6월 2일 오전 10시 30분 '탑골 서당'이 각각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속리산3', 박한샘, 한지에 수묵, 162×260cm, 2017


장경사, 최용백 作.

남한산성의 과거와 현재, 사진에 담아

만해기념관, '다큐멘터리 사진전 남한산성' 특별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전이 열린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명예관장 전보삼)은 최용백, 최중욱, 조선운, 최태종, 민주식 5명의 사진작가를 초대해 '다큐멘터리 사진전 남한산성' 특별전을 5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 1층 갤러리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각자의 철학과 시각으로 바라본 남한산성의 모습 총 21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5개 섹션으로 △1부(최용백) 사찰의 미소-망월사, 장경사 △2부(최중욱) 성곽의 숨결 △3부(조선운) 옛길의 흔적 △4부(최태종) 역사와 소통하다 △5부(민주식) 전통의 혼(魂)으로 나뉜다. 박아름 기자



대대로 백성 사랑 받는 이유 있었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⑨ 조고손시지와 호잔지



호잔지의 본당. 뒤에 보이는 바위는 엔노교자, 구카이가 수행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조고손시지 상징인 큰 호랑이 인형. 뒤에 보이는 건물이 사찰의 본당이다.

日이쿠마 지역민들 본찰 역할
조고손시지, 호랑이 인형 눈길
산악 수행의 명소였던 호잔지

재일교포 사찰 60곳 있었지만
세대를 거치며 20여 곳만 남아

나라 사찰은 조고손시지(朝護孫子寺)와 호잔지(寶山寺) 소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대부분 사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할 사찰은 간사이(關西) 지방에서는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수도권 출신인 나도 이 사찰은 이름조차 몰랐고, 간사이 지방에 살게 되어서 알게 된 곳이다. 일본에서 좋은 관광 정보는 전철역에 비치된 안내서가 도움이 된다. 나 역시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안내서에 자주 나오는 사찰이 조고손시지와 호잔지였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사찰에 참배하고 1년의 행복을 기원하는 하쓰모데(初詣)에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 같아 궁금해서 나도 찾아가 보았더니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찰이었다. 무엇보다 간사이 지방 민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역민이 자주 찾고 좋아하는 사찰을 통해서 간사이 지방의 역사나 문화를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소개하기로 했다. 조망이 아주 좋은 것도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다.

조고손시지(朝護孫子寺)

조고손시지를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포스터에 꼭 나오는 사진이 거대한 호랑이 인형 사진이다. 보통 대개의 경우 호랑이 인형은 사찰에 없기 때문에 특이한 사찰이란 인상이 있었지만, 내가 범띠라서 그런지 이 사찰 역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조고손시지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사찰이다. 6세기 후반에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가 모노노베씨(物部氏)와 싸움에서 이기고자 발원하고 지금 조고손시지가 있는 산에서 기원했더니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 나타나 쇼토쿠타이시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승리한 쇼토쿠타이시는 여기를 '신(信)=믿을 만한' '귀(貴)=귀한' 산이라고 여기고 시기산(信貴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스스로 비사문천왕을 제작해 가람을 만들고 비사문천왕을 봉안했다. 비사문천왕이 나타난 날이 마침 인년(寅年), 인일(寅日), 인시(寅時)여서 호랑이를 비사문천왕의 사자(使者)라고 여긴 것이 조고손시지 호랑이의 유래이다. 지금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약 6m인 큰 호랑이 인형이 조고손시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고손시지라는 사찰 이름은 헤이안 시대 때 다이고(醍醐) 천황에게서 하사 받은 것이다. 다이고 천황이 병에 걸렸을 때 시기산 비사문천왕의 가호를 입어 쾌차하자 이곳을 조정(朝廷) 안녕, 국토 수호, 자손(子孫) 장구(長久)를 기원하는 곳으로 정했다. 조고손시지라는 명칭이 이렇게 탄생했다.

경내 건물이 화재로 몇 번 소실되었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폐불훼석(廢佛毁釋)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스님들의 중창 노력과 신자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복원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본당(本堂)이 소실되었을 때도 신자들의 기부금이 1억6천만 엔이었다고 한다. 민중의 지지가 조고손시지의 중흥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내에 탑두(塔頭, 본사에 속하는 사찰로 본사 경내에 있는 작은 절을 가리킴)가 3개 있는데, 탑두 3개 다 큰 숙방(宿坊, 참배객을 위한 숙박 시설)을 갖고 있고 신자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도 묵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조고손시지가 민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호잔지(寶山寺)

오사카 난바역에서 도다이지나 고후쿠지가 있는 긴테쓰 나라역 방면에 전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나라현에 있는 역(驛)이 이코마(生駒)역이다. 호잔지에 갈 때는 이코마역에서 내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 호잔지가 있는 이코마야마(生駒山)가 옛날부터 산악 수행을 하는 장소였다. 에도 시대의 승려 단카이(湛海)는 17세기 후반에 이코마야마에 올라가 수행하고 여기에 사찰을 만들었다. 이것이 호잔지의 시작이다. 호잔지 주요 불상이 본당에 안치되어 있는 부동명왕과 본당 옆에 있는 성천당(聖天堂)에 안치되어 있는 환희천(歡喜天)이다. 환희천은 원래 힌두교 악신(惡神)이었으나 십일면관음보살에 의하여 불교를 수호하는 선신(善神)이 되었다고 한다.

환희천은 기원하는 사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절대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신으로 존숭을 받아 왔다. 특히 금전운이나 장사 번창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지로 번창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백성들의 사찰 순례가 유행했다는 배경도 있는데다가 '천하의 부엌(天下の台所)' 오사카에서 가까운 호잔지에 오사카 사람이 많이 찾아간 것도 호잔지 번영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호잔지 참배 길 양쪽에 석주(石柱)가 줄지어 있고 석주에 기부한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새겨져 있는데 100만 엔, 200만 엔이 드물지 않고 2000만 엔, 5000만 엔, 심지어 1억 엔이라는 금액도 눈에 들어온다. 호잔지 신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숫자가 보여준다.

이코마 지역과 재일교포

지난 회까지 소개한 나라 사찰들에 비해 조고손지와 호잔지는 민중의 힘이 더 큰 받침이 되어 있다.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코마야마-시기산(이하 이코마)지역은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본에는 입산하여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슈겐도(修驗道)라는 일본 특유의 신앙이 있다. 슈겐도는 산에는 신이 계시는 곳 혹은 산 자체가 신이라고 여겨 산을 존숭해 온 일본 고래의 산악신앙이 불교나 도교 등과 결합된 혼종 종교이다. 이코마는 산도 있거니와 계곡도 많고 수질도 좋아서 폭포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옛날부터 슈겐도 성지였다. 슈겐도를 익히는 자를 슈겐자(修驗者) 또는 야마부시(山伏)라고 부르는데 슈겐도의 개조는 전설적인 인물인 엔노교자(役行者)이다. 호잔지는 옛날에 엔노교자,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인 구카이(空海, 일명 弘法大師)가 수행했다고 전하는 곳이고, 단카이 스님이 이코마에서 수행하고 사찰을 건립한 것도 이런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코마는 또 재일교포가 만든 사찰이 많은 곳이다. 이에 대해 〈聖地再訪(성지를 다시 방문함) 生駒の神(이코마의 신들)〉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면서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한다. 책에 의하면 이런 사찰이 이코마에 60여 개 있다고 한다. 지금은 20개 정도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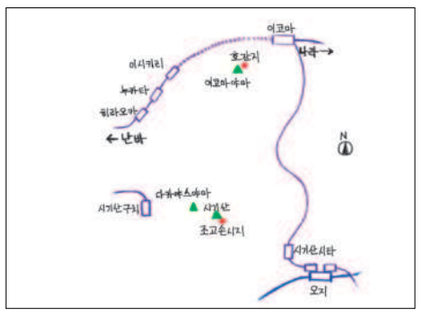
이 사찰 대부분이 194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재일교포 1세에 의하여 건립된 것이고, 신자도 재일교포 1세인 여성이 많았다. 도시에 있는 재일교포가 만든 사찰과 달리 이코마 산 속에 있는 재일교포 사찰이 규모도 작고 지도에도 표시 안된 사찰이 많아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이런 사찰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책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다.

내가 답사한 코스는 이코마야마 서쪽 즉 오사카 쪽이다. 긴테쓰 이시키리(石切)역에서 주택가에 있는 가파른 비탈길을 계속 올라갔다. 여기는 길가에 작은 석불이 많아서 인상적이다. 주택이 점점 없어졌다. 지도에는 재일교포 사찰의 표시가 있는데 못 찾았다. "폐사(廢寺)가 된 사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없어진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니 한국어 발음 로마자로 절 이름을 표시한 사찰을 하나 찾았다. 그런데 사찰이라기보다 오래된 집 같은 건물이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재일교포 사찰이 몇몇 있다고 하는 또 다른 길도 걸어봤다. 사찰 안내판이 있어서 재일교포 사찰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건물이 낡은데다가 사람도 없어서 이미 폐사된 곳이었다. 책에 의하면 이전엔 많은 신자가 모였다고 한다. 재일교포도 세대가 바뀌면서 종교적인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코마 산 속에 있는 좁은 길에서 폐사된 사찰도 몇 개 확인했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작은 사찰도 보았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좁은 길에 있는 소규모의 사찰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답사를 통해서 이코마가 옛날부터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과 호잔지처럼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찰이 이코마에 있는 이유도 알았다.

교통 및 답사 안내



조고손시지에 갈 때는 긴테쓰 시기산시타(信貴山下)역이나 긴테쓰 오지(王寺)역 또는 JR오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있다. 소요시간 20~30분. 또 긴테쓰 시기산구치(信貴山口)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카야스야마(高安山)역까지 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호잔지는 긴테쓰 이코마역에서 내리고 옆에 있는 도리이마에(鳥居前)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호잔지역에서 내리고 호잔지까지 10분 정도 걸어간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케이블카를 타고 유원지가 있는 이코마야마 꼭대기까지 가는 것도 재미있다. 호잔지에서 정상까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린다. 꼭대기에서 이코마야마 서쪽에 있는 긴테쓰 이시키리역이나 누카타(額田)역, 히라오카(枚岡)역 방면으로 내려가는 답사 코스도 몇 개 있다. 이코마의 작은 사찰들도 이런 답사 코스에 들어가 있다.

조고손시지도 호잔지도 오사카에서 가깝고 조망도 아주 좋다. 꼭 한 번 가보시기를 바란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오래된 자조(自照)

계절은 다시 연둣빛으로 깊어가고, 계절 속에 서있는 석탑은 또 새로운 오늘을 견딘다. 저 짙어가는 풀잎만큼만 하여도 좋으련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서 달라지지 못했고, 아득한 세월을 하루처럼 견딘 석탑 앞에서 나의 오늘은 또 다시 힘겹다. 어느 날, 그렇게 혼자가 된 것은 나만을 걱정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남을 도울 수 없는 것 역시 나만의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 계절이 지나가면 다른 빛깔의 계절이 찾아와 또 다시 깊어갈 텐데. 그리고 석탑은 또 다른 하루를 여전히 견뎌낼 텐데….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⑩ 난타의 지옥 구경

아름다움과 추함은 부질없다

부처님은 고향 가비라성을 방문한 걸음에 이복동생 난타를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발우를 들고 아난과 함께 난타의 집으로 걸식을 나섰습니다. 마침 난타는 집에 있었고, 예쁘기로 이름난 난타의 부인 손타라는 눈썹 사이에 향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난타가 나가서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하자, 부인 손타라가 말했습니다.

"내 이마의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난타가 그러겠다고 말하고 문밖을 나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타는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발우를 받아서 음식을 담아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발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부처님을 모시고 온 아난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난도 받지 않자, 다시 부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발우를 든 난타를, 부처님이 머무시는 냐그로다 숲, 냐그로다 정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삭발을 맡은 제자를 시켜 난타의 머리를 깎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타가 반항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아난을 데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운 난타는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억지로 비구 스님이 되기는 했지만 난타의 생각은 언제나 부인 손타라의 예쁜 모습에만 가 있었습니다.

'예쁜 손타라가 화장을 하면서 말했지. 이마의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만 부처님 위엄에 눌려 마음에 없는 머리를 깎고 말았어.'

생각만 해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뒤에도 집으로 달려가 손타라를 만나고 싶었으나, 부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시고, 난타 혼자서 정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난타의 마음을 아시고, 몇 개의 병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쉬운 숙제를 주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타에게는 그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채운 병이 저절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든 병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두고, 손타라를 보러 가자"하고 문을 모두 닫고 떠나려하는데 닫은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문을 닫으면 큰 문이 열리고,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 문이 열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두고, 손타라를 보러 가자"하고 정사를 나섰습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시고 난타가 가는 길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난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신이 허공에 나무를 뽑아 올렸습니다. 난타의 모습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림 · 강병호

"너는 부인을 잊지 못하는구나." 부처님은 난타를 데리고 정사로 오셨다가, 아나파산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중에 늙은 애꾸눈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원숭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손타라의 모습을 저 원숭이에게 견줄 수는 없지?"

"세상에서 손타라처럼 예쁜 모습은 없습니다. 애꾸눈 원숭이에 견주시다니요?"

난타는 부처님 말씀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난타를 이끌고 도리천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도리천은 우리 세상이 있는 염부제에서 팔만 유순 높이가 되는 수미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먼 곳도 부처님 걸음으로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난타에게 도리천의 33개 궁전을 보여주고, 한복판의 궁전 선견성(善見城)을 보여주셨습니다. 표현이 안될 만큼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다시 하늘나라의 여자, 천녀(天女)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될만치 예뻤습니다. 손타라와 예쁘기를 견주면 손타라는 애꾸눈 원숭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궁전마다 궁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왕의 자리가 비어 있고 5백 명 천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난타가 물어보았습니다. 천녀들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는 난타라는 아우님이 있어요. 출가한 인연으로 목숨이 다하면 이 하늘 궁전의 왕이 되실 겁니다. 빈 자리 여기는 그 분이 오실 곳입니다." 그러자 난타는 "내가 바로 난타요"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예요. 인간 세상에서 인연이 끝나야 오실 수 있어요." 천녀들이 말렸습니다. 난타는 하늘나라에 자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난타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아우성이 넘치는 화탕지옥에는 죄인들이 끓는 물속에 삶아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끓고 있는 화탕 한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난타가 옥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끓는 화탕은 어째서 비어 있지요?"

옥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동생에 난타라는 말썽장이가 있지요. 비구가 되었지만 부인이 보고 싶어 계를 어기려한답니다.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지면 죄를 다스리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난타가 부처님께 합장을 하며 빌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천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 화탕지옥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

"큰일났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도를 닦은 난타는 이레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법원주림(法苑珠林)제22권 입도편 인증부〉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